



43rd
ASIAN AND PACIFIC
CONFERENCE OF
CORRECTIONAL ADMINISTRATORS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9-13 November 2025, Republic of Korea



교정
vol.594.
2025. November

11

D e e p e n

법무부 교정본부

Contents

vol.594_2025. November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스크린 __ 골프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교정분야
심리전문가가 된다는 것
박근영 진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12 우리는 한마음

공감으로 이어가는
삶의 두 번째 무대
인터뷰 | 변옥련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춘천지회 회원

교정 이야기

16 교정 이모저모

전국 교정가족 한자리에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18 교정 기관

'소형' 기관의 틀 안에서
'대형' 행정력으로 빛나다
상주교도소

24 교정과 사람들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그리는
교정시설 의료의 미래 그림
상주교도소 의료과

교정 아카이브

28 교정 포커스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상)
정재훈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교위

44 교정 논문

교정 기동순찰팀(CRPT) 직원의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정호 수원구치소 보안과 교감

66 교정 리포트

마약류 수형자의 인지적·정서적 재범 촉발 특성(상)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교감

교정 뉴스

86 교정본부 NEWS

88 교정기관 NEWS

95 모범 공무원

96 독자마당



COVER STORY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며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더 단단해지곤 합니다. 교정의 길 위에서 흘러온 80년의 시간도 그렇게 쌓였습니다. 수많은 하루가 만들어 낸 작은 깨달음과 실천으로 마음의 결을 다듬어 왔고, 그 결이 서로 맞닿아 교정의 정신은 보다 굳건해졌습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자 다짐입니다. 교정의 날 8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또 한 번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공감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길 위에서 오늘도 그 의미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이흥연 법무부 교정정책담당장 발행일 2025년 11월 7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인스타그램 [instagram/korea_correctional_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 — 골프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늦은 오후 경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가 문득 고개 들어 창밖을 보자니 그옥이 깊어 가던 가을이 벌써 힘을 잃고 한 발짝씩 멀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을은 이미 열린 황토빛의 뒷모습을 하고 더 깊은 오솔길로 걸어 들어가며, 스스로의 그림자를 길게 늘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른 나뭇잎의 무더기들이 쉬임없이 구르고 흩어지는 등 익숙했던 가을의 몸짓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다 싶었는데 생뚱맞게, 그야말로 뜬금없이 “아, 스크린 골프라도 한번 쳤으면!”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어쩔 낙엽향이 진하게 뻗 상실의 계절에 동화되어, 성치 못한 육신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의 일단이 난데없이 요동한 탓이거나 싶어 이내 고개를 가로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범속한 일상에서 잠시라도 심연을 환히 비추어 줄 ‘등대 같은 삶의 주문’ 하나쯤이 필요하다 했을지라도, 꼭꼭 숨겨둔 욕망이 두서없이 고개를 들고 스스로를 떠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필 골프를 이름하였음은 정녕 뜻밖의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십여 년 전 경추의 이상 증세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은 터라 골프채 따윈 진작에 버리고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호전을 기대하고 받은 수술이었지만 그 예후는 오히려 수술 전만 못하여 입술을 깨물었고, ‘타고르’의 말처럼 ‘고통을 멎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온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가을에 느닷없이 골프가 생각났었는지, 독백은 사소한 꾸밈조차 깊이 파고들어 내상을 입힌다고 하더니만, 과연 적지 아니한 마음의 갈등과 흔들림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이 맞든 맞지 아니하든, 몸이 아프건 말건 문득 찾아온 이 가을, 이 욕망을 마냥 외면한 채 고개를 돌리고 싶지는 않았습시다. 찰나에 오기마저 북받쳐 올랐습시다. ‘실패는 남이 만들지만 포기는 내가 한 것’임을 더는 변명하지 말자고. 삶의 영역을 제한하는 마음의 장벽 앞에서 쉽게 몸을 사리고 주춤거려 온 자신에 대한 질타와 맹성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맞는지 고민하지 말고 결정하고서 그걸 옳은 결정으로 만들라’는 말도 생각났습시다. 생각이 바뀌기 전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토요일 스크린 골프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난데없는 골프 회동 제의에 ‘아버지 괜찮으시겠습니까’하고 크게 놀라는 아들의 목소리는 그러나 유쾌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컨디션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리라 지레짐작하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자면 골프에 얽힌 내 인연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1999년 초임 소장
으로 부임한 안동교도소는 물론 그다음 근무지인 대구구치소 등에 자체 골프연
습장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안동만 해도 교도소 인근에 이미 골프연습장들을
여럿 볼 수 있었기에, 행여 이런 것들이 직원들의 마음에 열등의 지푸라기로 남
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주어진 여건을 즐기지 않는 것과 여건이
주어지지 못해 아예 즐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흐름을 전혀 달리하
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동의 경우 교도소 구외 산기슭에 자체 사격 훈련장이 있었는데, 연 1회 직원들
의 사격 훈련 시를 제외하고는 방치되다시피 한 곳이라 골프연습장으로 병행 사
용하기에 제격이었습니다. 사격장 전방 둔덕에 큰 기둥들을 세워 그물망을 치
고, 사대 쪽에는 여러 개의 타석을 만들어 연습용 아이언을 비치하니 제법 그럴
듯한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대구구치소장 재임 시에도 구외 공터를
활용,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직원들을 위해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는지언정 스스로는 골프채를 잡아 본 적도
또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한 선의의 행위도 자칫하
면 기관장이 골프에 빠져, 골프장이나 만들어 노닥거린다는 왜곡과 호도에 직면
하기 십상인 때문이었습니다. 음모의 문화에 젖은 눈은 늘상 부정적 복선만 바
라보기 쉬운 탓이기도 하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모 정보기관 요원이 귀뜸하길,
기관장이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골프에 빠져 있다다는 첩보가 있어 탐문한 결과,



직원들을 위한 것일 뿐 정작 기관장은 골프채도 잡을 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는 과안대소하였으며, 상부에 보고하기도 좋았다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간의 교정시설 골프연습장 건립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나 할까요.
대구구치소 근무 중 그야말로 골프의 산실이라 할 국방대학교 입교 명령이 하달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대학교는 주어진 본연의 학과 못지않게 주말 골프의
친교 또한 무척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골프채를 구입하였고,
입교 전부터 동네 인근의 골프연습장에서 개인 교습을 받는 등의 호들갑을 떨기
도 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 동안 골프채를 놓지 않고 틈틈이 즐겨 왔었
니다만, 갑작스레 닥친 병마로 두 번의 큰 수술을 받은 뒤로는 골프채를 아예 놓
았으니, 그 세월이 또한 이미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면역을 잃어버
린 탓인지라 골프라면 만정이 다 떨어져, TV를 시청하다가도 골프에 관한 것이
나오면 재빠르게 채널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오늘의 이 갑작스
런 골프에 대한 도전을 괴이적이고 불편한 느낌 없이 선뜻 수긍하기가 쉬울 리는
만무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이 다가왔고, 아들과 며느리가 골프백을 들고 찾아왔습니
다. 이미 스크린 골프장도 예약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갓 문을 연 듯한 깨끗한
시설의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내와 나,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네 명이 함
께 일함을 나누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마주하는 공인지라, 헛스윙과 뒷땅, 탑
핑 등 연속되는 우리 부부의 몸짓은 연신 폭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잔디
갈린 넓고 푸른 골프장이 아니어도 즐겁기만 했습니다. 낭만과 열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더니, 그 말은 맞았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과 같이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정말 원했었는데,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하는 며느리의 눈가가 축축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쩔 그간 내 삶의 속도와 필요에 겸손하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 모두의 소슬한
성취마저 앗아온 것은 아닌가 싶어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 왔습니다. 다만 마음
의 공간을 풀고 열정을 다한 오늘의 몸짓으로 하여, 묵은 빚 하나는 갚은 기분이
라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내친김에 다음 달에도 스크린 골프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몸의 불편함쯤은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잠금을 풀었을 때의 그 비워냄이 주는 해방감의
풍요를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자신만의 속도와 풍경을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의 삶과 속도를 감안, 과속과 감속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옳을 듯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보낸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우리 부부의 골프화와 골
프 장갑이 곱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교정분야 — 심리전문가가 된다는 것



박근영
진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 1 | 교정, '전문성'을 요구하다

1999년 11월 15일, 진주교도소에 처음 임용된 날로부터 26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보안과(19년), 의료과, 심리치료과 등(7년)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수용자와 교정정책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심리치료과에서 마주한 정신질환자, 마약류 등 중독자, 성폭력사범들은 내게 '교정분야 전문가'란 무엇인가를 되문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정은 처벌과 통제를 넘어 회복과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복합적이고 정교한 전문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 변화 속에서 전문가란 단지 경험이 많은 실무자나 자격증 보유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전을 통합하고, 정책을 현장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 변화의 가능성을 설계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이며, 저 역시 이러한 기준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교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 2 | 실무와 학문, 두 세계를 잇다

저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2006년에 아내와 같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를 복수전공하며 배움을 시작한 후 2008년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임상 및 상담심리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 2025년 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기 위해 강의와 실무의 접점을 넓히고자,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겸임교원(2018~2022)으로 '범죄심리학'을 강의했고, 법무연수원 등에서 전국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심리이해 교육을 진행했으며, 소속 기관에서는 성폭력, 마약, 정신질환 교육을 맡아 동료들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11주 통합재활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생물-심리-사회(Biopsychosocial) 모델을 중심으로 RNR(Risk-Need-Responsivity), GLM(Good Lives Model), 통합심리치료(IPT)의 핵심 요소들을 통합한 것으로 실험집단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스트레스 지각, 회복지표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이는 현장 기반 개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 3 | 국가/민간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저는 전문성을 형식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고자, 범죄-중독-건강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지도사, 사회복지사, 사회조사분석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국가/민간 공인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현장에서 위기대응,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설계, 실태조사, 정책 제안 등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학위와 자격, 실무 경험이 저의 삶에서 하나로 연결된 도구이자 언어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4 |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다시 나의 길을 묻다

26년의 근무 중 세 번의 휴직을 경험했고 투서로 인한 감찰을 1회 받았습니다. 첫 번째 휴직은 석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었으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외적 갈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투서는 조사 결과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퇴직을 고민하기도 하였고 자존감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기도 하였으며, "교도소에선 다리 튼튼한 교도가 박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지금도 내게 크고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저의 신념과 가치를 흔들었지만 동굴의 시간들은 단순한 시련을 넘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질문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시간마다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선후배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동료들의 진심 어린 격려였고 아내와 아들의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버텨준 이들의 존재는 단지 직장 동료를 넘어,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역경이 저를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켰고 견딘 경험은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이야말로 교정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가장 소중한 자질임을 확신하게 해준 감사한 일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5 | 삶의 균형이 주는 지속가능성

저는 전문성을 단지 성과나 경력의 총합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며, 그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속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고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삶의 축을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배우고 수련을 통한 자기성장이고, 둘째는 건강한 정서적 유대와 경제적 안정을 통한 가족 행복이며, 셋째는 보람과 의미를 통한 직업에서의 만족이며, 마지막은 봉사를 통한 공동체 기여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저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고 교정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초임 때 들었던 “담장 안에 갇히지 말라”는 존

경하는 권○진 선배님의 말씀대로 26년을 살아왔고, 남은 인생도 즐겁고 재미있게 의미를 찾으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6 | 회복과 재범방지, 그 중심에 서 있는 교정심리전문가

교정시설은 단지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이 아니며 변화의 가능성을 일깨우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사회입니다. 수용자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정은 단순한 시간을 갈아 넣는 소모가 아닌 인간 회복의 본질적인 과정입니다. 교정 분야 전문가의 역할은 보안, 직업훈련, 사회복귀, 의료, 심리 치료 등 여러 영역에서 그 여정을 설계하고, 동행하며, 이끌어내는 일이며, 정신질환, 중독, 낮은 자기 조절력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지닌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적응하고, 출소 후에도 재범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은 교정분야 전문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관으로 저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일지,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알 수 없으나, 성장의 바탕이 되어준 이곳에서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과 회복을 믿고 그 여정을 함께하고자 하며, 실증 기반의 개입과 따뜻한 공감으로, 교정의 내일을 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길의 한 가운데에 나의 삶과 소명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7 | 이 길을 걷는 후배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걷고 있는 길을 가고자 하시는 직원분들께 한 말씀 올리고 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조직의 무게에 눌리며, 자신의 존재 가치조차 의심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단단해지고, 깊어지며, 진짜 사람이 되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이란, 단지 자격증이나 경력, 학위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것은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수용자의 변화 가능성을 끝까지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동료에게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교정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투박한 걸음이 후배님들에게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보안, 직업훈련, 사회복귀, 의료 등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정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중 심리치료 분야도 직원분들께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으로 이어가는 삶의 두 번째 무대

변옥련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춘천지회 회원

INTERVIEW

한 사람의 '삶'은 보통 세 가지 사이(間)를 지나며 쌓이는 이야기다. 시간(時間)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관리'하고, 공간(空間)이라는 무대 위에서 그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人間)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서사를 따라 익어가며 깊어진다. 변옥련 회원(대한민국교정동우회 춘천지회)의 정돈된 환경과 생기 있는 표정에서는 매 순간 그의 삶이 얼마나 '사람 중심'이었는지가 읽히는 듯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바다의 품에 심은 '삶'의 자리

통창 너머로 보이는 넓은 바다는 쪼그라든 마음을 다림질하고, 정돈된 객실로 불어 드는 바람은 밤새 머물던 공기를 정화한다. 넓게 트인 시야에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환기되고 나니, 이내 따뜻한 풍경이 그려졌다. 이제 카페에선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삼삼오오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입실과 동시에 '힐링'을 경험할 투숙객들은 자신만의 시간으로 충만해지리라.

변 회원의 현(現) 무대는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쓰듯 드나들고, 맑은 날이면 초록빛이 유난히 깊어지는 강원도 고성 of 바닷가 어느 펜션 겸 사진갤러리다. 주거지를 춘천에 두고 있는 변 회원은 이곳을 '퇴임 전부터 준비한 곳'으로 소개했다.

"사진을 좋아하는 남편이 이 지역에 왔다가 마음에 든다며 갤러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시작이 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초기엔 카페와 펜션이 모두 제 담당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에게 카페를 맡기고, 저는 주로 펜션을 맡는 편이죠. 바쁠 땐 서로 넘나들며 돕기도 하고요."

바다와 바람, 햇살과 사람, 그리고 가족의 손길이 겹겹이 얹힌 곳에서 변 회원의 날들은 퇴임 전과 다름없이 축축이, 그리고 촉촉히 짜여가고 있었다. 결국 변 회원에게 이곳은 펜션이나 카

페, 혹은 갤러리라는 이름의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을 관찰하고 익히며 그만의 서사를 이어가는 무대임이 분명했다.

공간에 담긴 공감과 위로, 그리고 응원

변 회원이 고성 바닷가에 마련한 이 공간은 단순히 하룻밤 묵어가는 숙박 시설을 넘어, 일상에 잠시 쉽표를 찍고 돌아가는 '회복의 시점(時點)'에 가깝다. 특별한 '무언가'는 없지만 바다를 배경으로 흐르는 '힐링의 시간'은 충분히 향유되기에, 누구든 이전보다 단단해진 마음으로 돌아가 일상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기를 변 회원은 바랐다고 한다.

"고성으로 오는 길이 50%, 바다가 20%를 채우고 나면 나머지 30%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채워지리라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지친 마음'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아주 잠시 스치는 곳이지만, 머무는 동안만이라도 자신을 돌보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쓰죠." 실제로 변 회원의 이러한 마음은 공간 구성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하의 갤러리에서는 상시 작품을 감상하며 사색에 잠길 수 있고, 계단을 오르면서는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에 집중하면 된다. 카페에서도 섬세한 배려는 돋보인다. 소품처럼 디스플레이된 소형 카메라들은 특별한 감성을

자극했고, 나무토막을 쟁가처럼 쌓아 꾸민 벽면은 따듯하고 입체적인 질감을 선사했다. 특별히 수납장 안 메뉴 옆으로 무심한 듯 세워 둔 피규어들로 변 회원은 일종의 ‘자기 돌봄’을 권하고 있었다. 곧 공간의 모든 요소가 ‘공감’과 ‘위로’라는 하나의 의도 아래 놓였음을, 그리고 그것은 저마다의 방문객이 스스로를 ‘옹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려 깊은 배려임을 알 수 있었다.

담장 밖의 삶, ‘공감’이라는 언어를 확장하다

변 회원은 1984년 6월 18일, 춘천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불과 스물넷의 나이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는 부연 속에는, 또 그랬기에 긴장과 돌발 상황이 공존하는 교정 현장에서 호트러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고백이 묻어 있었다. 소란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 성정대로 사람을 대하며 끊임없이 일상을 다독여 왔던 것.

변 회원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3~4년 차 무렵, 스무 살 남짓한 여대생들을 마주했던 기억이 오래도록 ‘공감’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건대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화전시회에 왔던 제 또래 여학생들이 시위자로 오해를 받아 이 유없이 끌려왔죠. 며칠 유치장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씻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난 상처에는 청바지가 달라붙어 있더군요. 제 또래라는 것이 일단 충격이었고, 그다음엔 ‘이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당시의 무력감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네요.”

그렇다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몸에 꼭 맞는

것은 아니었다. 교정직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데다, 한편에선 오래 품어온 ‘교육자의 길’에 대한 소망이 계속 마음을 흔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거나 다른 길을 위한 공부를 이어가기도 했음을 변 회원은 털어놨다. 반면 조금씩 다른 감정이 싹트기도 했다. 매일 같이 마주하는 수용자들의 불안한 눈빛과 서툰 웃음,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독이려 애쓰는 동료들의 뒷모습이 마음에 들어왔다. 겉으로는 규율과 통제가 지배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도 사람의 온기와 미묘한 마음의 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차가운 쇠문 너머에서 오히려 인간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변 회원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교정공무원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일이라는 깨달아 가며, “어쩌면 이 일이 내 길일지도 모른다”는 소명감도 싹트게 됐다.

교정, 공감으로 완성되는 길

변 회원은 그때부터 ‘수용자 대(對) 교도관’으로 나뉘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고백했다. 교사의 꿈을 접지 못해 이어온 공부의 방향은 어느새 상담 쪽으로 흘러갔고, ‘교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수감기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일’로 재정의 됐다.

“사람은 완전히 변하지 않더라도 변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승진 후엔 시야도 넓어졌죠. 예전엔 ‘기에 놀리지 말자’는 태도로 수용자를 대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을 헤아리며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고, 또 ‘삶’이더라고요. 흔들린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걸어왔고, 지금은 참 잘해왔다고 생각하게 돼요.”

요즘 변 회원이 몰두하고 있는 일은 동화구연 봉사라고 한다. 주말이면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을 찾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던 현직 시절의 경험이 퇴직 후 자격증 취득과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지금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를 들려주는 일이 일상이 된 것. 물론 강원북부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와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일도 변 회원에게는 크나큰 의미다. “교정은 교도소 울타리 밖에서도 완성된다”는 신념이 더욱 굳건해지며 아직 현역인 것 처럼 열정이 식지 않은 듯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여기 일을 안정시키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어서 춘천지회로 돌아가 활동할 생각에 살짝 설레기도 한다”고 말하는 변 회원의 얼굴 위로, 누구보다 성실히 현장을 지켜 온 책임감과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그 묵묵한 세월이 진하게 비쳐 보였다.



전국 교정가족 한자리에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법무부는 지난 80년간 국민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이끌어온 교정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10월 28일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행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정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무대가 됐다.

글_서선미 사진_교정본부

교정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자리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제80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제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제1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 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격려 메시지와 법무부 장관 기념사,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80주년을 기념한 사진전·교도작업 제품 전시·전국 교도관 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교정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무대가 됐다.

헌신의 땀에 감사, 교정가족 공로 기려

기념식에서는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과 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 김래동(안양교도소)·황숙(대구교도소)·이재식(울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영주 안동교도소장·서호성 법무부 직업훈련과장·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박상용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근정포장을 받는 등 총 4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전국 107개 팀이 참여한 ‘교정본부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도 진행됐다. 이번 교정의 날 기념식은 KTV와 주요 전철역 주변 전자 영상게시대, 지방자치단체 홍보대를 통해 보



도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교도관의 다양한 모습을 전했다.

격려와 감사로 밝히는 교정의 내일

지방교정청별로는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등 부대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국 교정기관에서는 모범수용자를 가식방함으로써 진정한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정 80년의 빛나는 역사와 성과는 교정가족의 헌신 덕분이며,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며 “교도관들이 더 높은 자긍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화방송 정오라디오 ‘함께 만드는 희망이야기’에 특별출연, 교정공무원들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용자들에게는 “사회복귀를 향한 희망과 용기를 나눠보는 시작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소형’ 기관의 틀 안에서 ‘대형’ 행정력으로 빛나다

상주교도소

상주는 낙양(상주의 옛이름)의 동쪽을 흐르는 강, 낙동강이 품은 도시다. 예로부터 경상도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지로서, 물길과 육로가 만나는 곳마다 사람과 문화가 오갔다. 그 흐름은 지금도 이어져, 상주는 여전히 ‘연결’의 도시로 기능한다. 이 같은 상주의 품성은 상주교도소의 존재와도 맞닿아 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낙동강 흐름 위에 세운 교정행정의 물줄기

낙동강을 따라 흐르는 길목에 자리한 상주교도소는 내륙 한가운데 위치해 전국 어디에서든 닿기 쉬운 접근성을 지닌다. 서울청과 대구청 간 간 이송의 중간 기착지로서 효율적인 교정 운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물길처럼 넉넉한 지역의 품성을 따라 수용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회복을 돕는 '교화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절된 이들이 다시 사회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공간, 낙동강처럼 쉽 없이 흘러가는 상주지역 교정행정의 또 다른 물줄기다.

2013년 11월 대통령령 제24829호로 신설 확정된 상주교도소는 이듬해 9월 4일 문을 열었다. 설계 단계부터 독거처우 위주의 완화경비처우급 시설로 계획되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립됐다고 한다. 총 부지면적 20만 6천여㎡, 23개 건물에 230개의 수용거실을 운영 중이며, 수용 가능 인원은 490명이나 현재 실제 수용률은 118%에 이른다. 결코 여유롭지 않은 환경이지만, 상주교도

소의 운영 철학은 단호하고 일관된다.

마지막까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며 수용자의 마음을 보듬는 것. 말하자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 바로 상주교도소가 지향하는 교정의 방향이다.

공간 기능 넘고, 공공가치 실현 향해

상주교도소의 설립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오랜 지역적 필요에서 비롯됐다. 과거 상주 지역에는 교정시설이 없어 수용자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임시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 결과 수용 환경은 열악했고, 교정·교화 프로그램 역시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웠다. 수용자의 생활 여건은 물론, 교정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까지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 이러한 상황은 지역 내 인권 보장과 교정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결국 새로운 교정시설의 필요성을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역 교정행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상주교도소는 500명 수용 규모의 소형 교정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나, 비록 규모는 작을지언정 교화와 처우 중심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저층 분산형 외관은 폐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한편, 채광과 환기에 좋은 건물 배치를 통해 쾌적하고 개방적인 생활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슬로시티 상주'¹⁾가 추구하는 청정 생태도시의 가치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이렇듯 상주교도소는 수용을 위한 단순한 '공간'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수용자의 회복과 교화라는 복합적 가치의 '실현'으로 나아간다. 그러도 그 지향점은 다름 아닌 '인간 존중'과 '환경 친화', '지역 상생'이다.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사회의 안정으로

상주교도소의 교정철학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수용자를 보듬는 마음'에 있다. 이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동시에, 엄정한 법 집행과 안정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인간에 대한

1) 넓은 들과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예로부터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이었던 상주시는 2011년 슬로시티로 공식 인증됐다. 슬로시티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도시 브랜드'로, 지역의 소중한 미래자산(고유자원·자연환경·전통 산업·예술·문화)을 지키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활용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존중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돕는 일, 곧 '사회 안정'이라는 궁극적 가치와 만나는 길이다.

이와 같은 교정철학은 상주교도소가 운영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스며 있다. '질서 확립과 교화의 병행'이라는 핵심 원칙은 "모든 수용 처우를 주간에 완결하고 야간에는 응급상황 대응에 집중한다"는 수칙을 마련, 효율적인 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한 수용자의 물품 휴대를 최소화해 신체검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현장 근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정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인권과 안전의 균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상주교도소는 주요 이동 동선에 진정함과 신고함을 설치하고, 고충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수용자의 의견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힘쓴다. 아울러 과도한 CCTV 사용을 자제하고 법령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말하자면 상주교도소는 안전을 인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치로 바라본다. 수용자의 물품 휴대를 최소화하고 신체검사 과정을 축소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부정물품의 반입과 거래를 차단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바로 이러한 시선에 담겨 있다.

교정의 철학이 사회의 일상이 되기까지

상주교도소의 교정철학은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다양한 교정·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사회복귀과에서는 집중인성교육과 석방 전 교육, 캘리그래피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용자의 내면 성찰과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직업훈련과에서는 '허그일자리', '취·창업 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마련해 출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보안과 심리치료팀의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지원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와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치료·상담 과정을 병행하며 교정과 교화의 '본질적 목표'에 닿고자 분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몫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피부미용 직업훈련 과정은 유독 눈길을 끈다. 전문 강사의 지도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시험 응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최근 한 여성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학습을 이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도소 직업훈련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상주교도소 직원들이 직접 지역 업체와 협력해 채용 면접에 동행한 끝에 이뤄낸 결과로, 해당 수용자는 현재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교정이 단순한 수용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함께 걷는 길, 공유되는 가치

상주교도소의 '사람 중심 행정'은 교정시설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된다.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달팽이봉사단'은 매월 적립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지원, 노인회관 방문, 장학금 전달,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쓴다. '직원 소통 게시판'과 '소리함' 설치를 통해 근무 방식의 효율화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 직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직원들이 직접 흙을 나르고, 수도를 연결해 만든 청령산책로 끝의 '횡뚝길'은 상주교도소만의 특징이다. 이름처럼 따뜻한 흙빛이 감도는 이곳은 하루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는 공간이자, 동료들과 마음을 나누는 회복의 공간으로 인기만점이다.

오르막길을 지나 황토를 밟고 서면 보이는, 곧 낙동강의 유연한 흐름을 만나 자유롭게 뻗어갈 완만한 내리막길은 마치 직원들이 먼저 행복하고, 지역이 신뢰하며, 그 가운데 수용자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듯하다. 바로 상주교도소가 그려가는 지속 가능한 교정의 길과 같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그리는 교정시설 의료의 미래 그림

상주교도소 의료과

직업인으로서의 의사의 시선은 언제나 환자의 통증과 상처를 향한다. 교정시설의 의료인도 예외가 아니다. 범죄 이력이나 개인적 사연에 기대지 않고, 오롯이 ‘한 사람’의 환자로서 수용자를 대한다. ‘범죄’라는 굴레가 씌워져 있지만, 그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이다. 상주교도소 의료과 역시 눈앞의 수용자에게서 죄가 아닌 아픔을 보고, 오직 회복에 집중한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의료와 보안이 공존하는 특별한 현장

상주교도소 의료과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다. 진료와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매·보관·관리·배부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위생관리, 건강 기록 관리 등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교정시설의 의료는 진료의 본질은 같지만, 그 과정은 일반병원과 다르다. 대상이 ‘수용자’인 만큼 모든 의료행위가 보안 규정 속에서 진행된다. 진료 중 도주나 자해·타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공무원의 입회와 이루어지고, 외부 이송 시에는 이동통제와

분리 조치가 병행된다. 즉, 교정시설의 의료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의료와 보안이 공존하는 행정’이라는 하나의 특수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제약 속에서도 의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상주교도소 의료과가 환자를 수용자 신분이 아닌 ‘한 사람의 생명’으로 바라보며, 치료와 보안의 균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근거다.

작지만 유기적인 팀워크, 돌봄으로 완성되는 의료

상주교도소 의료과는 의사 1명, 공중보건 의사 1명, 간호직 공무원 3명, 교정직 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료팀·약제팀·행정팀으로 업무를 나누지만 규모가 작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분위기다. 이를테면 진료가 물리는 시간에는 행정 담당자가 진료 보조를 맡고, 간호직 직원이 약제 관리나 응급상황 대응에 함께 나서는 식이다.

이렇듯 의료과의 일상은 ‘분업’보다는 ‘협업’에 가깝다. 서로의 영역을 구분 짓기보다, 생명을 다루는 한 현장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 한다. 작지만 유기적인 이 팀워크가 곧 상주교도소 의료과가 환자를 지켜내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

최근 교정시설 의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수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다. 상주교도소 의료과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고혈압, 당뇨병 등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당뇨병의 장기 관리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꾸준한 사전 검진이야말로 질환 악화를 조기에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다.

장애인 수용자나 고령 수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별적 보호와 세심한 배려가 더해진다. 생활의 불편함이 크거나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수용동에 배정해 간병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독거실을 배정한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치료’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삶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돌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예방에서 대응까지, 생명을 지키는 일상

의료과의 업무는 치료를 넘어, 위급한 순간에는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이 되기도 한다. 심근경색이나 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와 간호사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동시에 기관에서 보유한 구급차를 이용, 지정 협력 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한다. 의료진의 판단과 교정직원의 협업,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맞물리며 비로소 수용자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응 체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정교해졌다고 한다. 당시 상주교도소 의료과는 집단생활이라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감염 확산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중심으로 체계를 강화했다. 유증상자 조기 발견과 격리, 생활공간과 진료공간의 동선 분리, 정기적인 방역과 소독을 통해 확산을 최소화했고,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 위기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이후에도 방역물품 비축, 감염관리 교육, 대응 매뉴얼 보완 등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결국 상주교도소 의료과의 역할은 '치료'와 '관리', 그리고 '대응'의 경계를 넘어선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의료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이들의 노력은, 교정시설 안팎에서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

신체를 넘어 마음까지, 교정의료의 확장된 역할

상주교도소 의료과의 역할은 단지 수용자의 신체 건강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회복을 돕는 일 또한 교정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과는 화상진료 시스템을 통해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협력하여 수용자들이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울·불안·충동 조절 등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재활의 과정을 병행한다. 정신건강 관리가 곧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아래, '치료'와 '회복' 사이의 균형을 놓치지 않으려는 섬세한 노력인 것이다.

물론 의료과의 관심은 상주교도소의 내부 구성원인 직원들에게도 향해 있다. 특수한 환경 속에서 고도의 긴장과 돌발상황을 상시 마주하는 근무자인 만큼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상담 연계를 통해 직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에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간호사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응급상황 대응, 자·타해 위험 관리,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정신건강 케어 등 교정의료 현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자세로 현장을 이끌 수 있도록 대응해 가는 것이다.

결국 상주교도소 의료과가 지향하는 것은 치료 이상의 가치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며, 수용자와 직원 모두가 '지속가능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상주교도소 의료과의 또 다른 사명이다.

섬세함과 신뢰로 그려가는 교정의료의 미래

상주교도소 의료과는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정밀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매주 1회 진행되는 '사례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를 함께 검토하며, 대응 과정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실무 중심의 역량을 꾸준히 다져간다.

의료장비의 현대화에도 앞장선다. 최근 전해질 분석기, 생화학분석기, 혈액검사기, 안저촬영기 등 다양한 첨단 장비를 도입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함은 물론, 예방 중심의 의료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상주교도소 의료과의 목표는 단순한 '시설 내 진료'가 아니다. 체계적이고 인간적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교정의 공간 안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 즉 상주교도소 의료과가 그리고 있는 '교정의료의 미래'다.

mini interview

박현우 의료과장



교정기관 의사로서의 보람은 수용자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던 중에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커집니다.

최근 많은 진단장비들을 도입해 구축한 시스템이 환자의 질환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교정시설 의료인에게 적절한 치료만큼 중요한 자질은 성실함과 따뜻함일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주교도소 의료과 구성원들이 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상)

- 일본 교정의료 중점시설 연구보고서 -



정재훈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교위

목차

- I. 서론
- II.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 III. 일본 의료전문시설의 종류와 체계
 - 1. 동일본성인교정(東日本成人矯正)의료센터의 개요
 - 2. 시설 운영의 특징
 - 3.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의 개요
 - 4. 시설 운영의 특징
 - 5. 기타큐슈 의료형무소의 개요와 특징
 - 6. 오카자키 의료형무소의 개요와 특징
- IV. 우리나라의 의료시설 설립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 목적

현재 교정기관에 수용하고 있는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부터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사회와 격리되어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대우가 당연한 것으로 인지되어 왔다. 또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보적 책임을 이유로 우리의 국가 예산이 이들의 의료처우에 사용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이들의 건강 상태를 원활히 유지하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사회 복귀를 통해 재입소율을 낮춤으로써 우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의미에서 수용자도 우리 국가의 일원이며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여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건강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건강 관리와 의료 수준은, 비록 그들이 자유를 박탈당하여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일반 사회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¹⁾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동일한 연령대 및 성별대의 일반인에 비해 정신과 신체적인 건강이 열악하다.²⁾

우리는 교정시설에서 업무를 겪다 보면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수용자 본인들의 인권 의식의 증진 등으로 좀 더 나은 교정 의료처우를 주장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들을 요구받아 왔으며, 동시에 우리는 시설 내 의료처우에 대해 수많은 민원과 고소·고발,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담당하는 직원 등과의 마찰 등으로 적지 않은 고초를 겪어왔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못한 만성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미비를 대안 등으로 지역사회 의사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의료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나,

1) 연성진·노용식·김안식·정여신 「수용자 보건·의료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8) p28, 발췌

2) 김승섭 「아름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2017) p247, 발췌

이는 각 교정시설의 상황에 따라 주 1회, 월 1~2회 등으로 실시 중이지만, 이 역시 수용자 인원 대비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5년 안양교도소를 비롯하여 새로운 제도인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현재 30개가 넘는 교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것 역시 진료의 특성상 화상으로 환자를 대면하기 손쉬운 정신과 진료 등의 일부로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교정시설과 지역 위치에 따른 의사 섭외가 쉽지 않다는 점과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사들은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보고서의 주요 과제를 삼고 있는 의료전문교도소를 1981년 전국교도소장 회의에서 교정전문병원으로 설립을 검토한 후 진행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와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루어져서 왔고, 이에 더불어 2009년 안양교도소 부지에 종합병원급의 의료중점교도소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의료중점시설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진주교도소를 시작으로 서울남부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순천교도소 등으로 일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일반병원에 비해 시설 및 인력 등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의료처우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교정 선진국의 연수원과 그 산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연구하고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 후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용관리와 일관된 치료를 병행하는 시설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거기에 2023년 11월경 ‘김길수 도주 사건’ 등 외부시설 계호 중 발생한 도주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계호 부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 교정본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계호 시의 교정 사고 발생의 예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이를 원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의료시설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의료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통합적인 수용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체재를 세울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 기준 국내 수용자 외부시설 입원 수는 연평균 약 1,960명³⁾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연수국인 일본의 히가시니혼(東日本)성인교정의료센터와 같은 의료중점시설이 부재하여 계호 인력이 낭비되고 관련 초과근무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직원 피로도가 상승되고 있다.

3) 2024 교정통계연보 112p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한국의 교정시설 의료처우에 대해 살펴보고 훈련국인 일본과 비교·분석하여 한국 교정 행정이 겪고 있는 의료인력 문제와 시설 설립 등의 난제와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의료중점시설의 의료체계 및 인력 해소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위 서론에서 서술한 바를 동 연수를 통해 도쿄의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오사카의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등을 포함한 의료전문시설의 운영 현황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수용자 의료전문 처우 시설 설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일본의 의료시설의 인력 운용 및 근무체계를 살펴보고 실무의 현장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설립 계획의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교정시설의 근무 인력 부족 현상과 직원들의 초과 가용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연수국의 실제 참관과 현장 근무자의 경험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진교정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미약하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시설의 실태와 문제점

1. 시설 운용의 현실과 문제점

바야흐로 한국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환자의 증가 등은 교정시설 내의 노령자의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인 수용자와 마약 관련 환자, 당뇨병 같은 대사 중후 질환군 환자 등이 일반적인 사회와 비슷하게 교정시설로 수용이 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의 근 5년간 병명별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부터 당뇨병과 같은 대사중후군 질환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혈압과 당뇨의 비율을 보면 당해년도 별로 50%를 차지하는 정도를 보이는 양상이며, 이것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추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 에이즈, 간질 등 전문적인 시설에서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것은 일선 교정기관으로서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이다.

〈표 1〉 전국교정시설 내 병명별 환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신질환	혈액투석	뇌전증	고혈압	당뇨	기타
2019	24,909	4,748	89	256	9,197	5,131	5,488
2020	24,250	4,978	70	277	9,221	5,024	5,000
2021	22,128	4,869	73	187	7,949	4,581	4,469
2022	27,388	5,622	89	272	10,268	5,635	5,502
2023	30,020	6,094	104	270	11,827	6,657	5,068

교정통계연보(2024) p105 부분발췌

이에 전주어 외부병원 진료 비율은 항상 증가세에 있다. 아래 〈표 2〉는 교정시설 내의 진료 현황으로 근 5년간의 진료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투약의 통계가 처치는 물론 혈액투석, 수술 등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전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혈액투석, 수술 등의 상대적으로 빈약한 현재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현실의 미비점을 반증한다.

〈표 2〉 전국교정시설 내 진료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투약	처치	혈액투석	수술	의학적 상담
2019	9,181,902	8,850,636	119,432	9,576	1,256	201,002
2020	9,260,367	8,936,707	111,726	9,606	1,043	201,285
2021	7,812,087	7,504,609	98,563	7,883	675	200,357
2022	6,861,741	6,540,107	90,043	8,242	771	222,578
2023	7,448,490	7,113,808	113,226	9,639	630	211,187

주) 수술 : 마취제를 사용하여 치료, 처치 :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은 간단한 치료(드레싱, 깁스 제거 등)
교정통계연보(2024) p106 부분발췌

또한, 위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수용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비로 외부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했으나,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으로 수용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되었으므로, 수용자는 종전의 자비 부담의 3분의 1만을 부담하면 외부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용자들은 외부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교정시설의 의료환경과 시설 내 의료처우의 불만 등으로 외부 진료의 이용을 대폭 신청하게 되었고 전국 교정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병원과 종합병원의 MOU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검사, 수술 등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아래 〈표 3〉은 2023년 기준 교정시설 의료비의 집행 내역을 나타낸다. 의료비의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의료인력과 시설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약품 구매의 증가 및 감소가 변동하고 있지만, 외부의료시설 진료비와 건강보험예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교정시설 의료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집행내역				1인당 의료비
	의약품 구매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건강보험예탁	기타	
2020	6,699	5,810	19,844	1,292	506,288
2021	9,016	5,943	17,825	1,422	583,990
2022	7,482	5,832	20,000	1,163	617,205
2023	8,498	6,402	25,350	1,419	636,907

주) 기타 : 신입자 혈액검사, 외부기관 건강검진, 원격진료, 방문진료 등
교정통계연보(2024) p113 부분발췌

2. 인력 운용의 현실과 문제점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 55개의 교정시설 중 의료인력을 〈표 4〉의 현황으로 살펴보면 현 인원은 의사가 83명, 약무주사가 14명, 간호직 183명, 의료기사가 36명이다. 이 중 눈에 두드러지게 의사인 의무관의 충족률은 70%, 약무주사는 87.5% 정도로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밖에 의무관의 보충 수단인 공중보건의 또한 고정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방부에서의 보건의의 감축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4〉 교정시설 의료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의사			약무			간호			의료기사			공중 보건의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정원	현원	충족률	
계	118	83	70	16	14	87.5	188	183	97	36	36	100	93

교정통계연보(2024) p114 변형발췌

또한, 기본적으로 전문의의 부재로 얘기하자면 춘천교도소, 원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창원교도소, 광주교도소, 대전교 논산지소, 포항교도소, 울산구치소, 밀양구치소, 부산구치소 등은 산부인과 전공의 중 한 명 이상이 산부인과 전문의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정시설이라고 한다.

이는 실제 남자 수형자가 대부분인 현실에 〈표 1〉의 정신질환, 혈액투석, 고혈압, 당뇨 등의 여러 질환의 적절한 대처를 해 줄 환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안양교도소, 수원구치소, 수원구 평택지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군산교도소, 정읍교도소, 홍성교 서산지소, 천안교도소, 통영교도소, 제주교도소 등은 전문의 자체가 상주하지 않고 일반의가 상주하고 대부분 외부의료시설에 의존하고 있다.

위와 같이 우리의 교정 의료환경은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을 비롯하여 주요 질환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로 진주교도소에서 이들에 대해 집금 치료를 하고 있으며, 교정본부에서는 지방청별 정신질환자를 치료, 보호 수용하는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치료감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의 정신질환자만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하고 있고, 그 외의 질환자들은 일반 교정기관별로 자체적인 수용 및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 전문의 또한 상주하는 곳도 전혀 없으며, 대부분 방문 일을 정해 교정 시설로 축적하여 진료를 맡고 있다. 치과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불안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한 차량 1대에 계호 직원 3명, 운전원이 1명 필요하며, 죄질과 형기에 따라 더 계호 인력이 보충되기도 한다.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주간에 3명 이상, 야간에는 교대 인원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최소 9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거기에 입원이 길어지면 사무직 등이 가용 인력으로 동원하여, 행정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래 〈표 5〉는 5년간 외부병원 입원 현황을 나타낸다.

〈표 5〉 외부의료시설 입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기결	미결	노역
2019	2,090	1,374	665	51
2020	2,002	1,349	602	51
2021	1,887	1,314	555	18
2022	1,990	1,284	692	14
2023	2,376	1,534	788	54

교정통계연보(2024) p112 일부발췌

현황을 보면 매년 꾸준히 기결, 미결수용자와 노역 수의 증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외부 진료의 가장 큰 문제로서 보고서의 테마이기도 한 도주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치명적이기에 교정본부 입장에서도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발생한 도주 사고 중 12건이 외부 병원 구외에서 일어났다.

진료 중에서 취약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정밀검사 시의 수갑 등의 계호장비 해제는 계호 직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는 외부의 접촉 시 직원들의 눈을 피해 부정 물품을 반입할 우려가 높기도 한 취약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특이점으로 보자면, 연수국인 일본의 경우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및 의료중점형무소의 시설의 기관장을 공안적인 형무관이 아닌 의무관을 기관장으로 취임시켜 의학적 판단을 맡기고 있다. 이는 의료종사자에 대한 입지적인 위신과 의욕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일본 당국의 판단이고, 더 많은 의료인들을 교정국의 영입시키려는 영리한 판단으로 보인다.

일본의 노력의 한 예로 보자면 의사의 인원과 의료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 내의 의료진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전국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상근의사 및 공중보건의, 간호사 등 포함) 정원 수는 총 409명⁴⁾으로, 교정 당국의 의료인력 확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4) 2024 교정통계연보 20p 참조

일본의 경우 법무성 교정국의 정규직 의사인 교정의무관 정원 수만 해도 295명⁵⁾이며 현재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의 의료직 정원만 해도 총 165명⁶⁾이다. 실로 비교 불가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앞으로 서술할 일본의 법무성 교정국 내의 교정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과 의료 장비의 구비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다. 수술실 및 회복실, 집중치료실을 포함하여 MRI 등의 고가의 의료 장비와 여러 진료과와 전문의 등으로 의료인력을 갖춘 일본 전국 4개의 시설을 통칭 의료전문시설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동·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정신과 등을 모아놓은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오카자키·키타큐슈의료형무소는 정신과 전문의 의료전문시설이다. 아래 <표 6>은 의료전문시설 현황이다.

<표 6> 의료전문시설 현황

(단위 : 명)

명칭	수용정원	수용현원	직원정원	의료직원	비고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580	212	419	165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구 오사카 의료형무소)	256	78	200	90	2024년 5월7일 개칭
키타큐슈 의료형무소	257	88	170	39	
오카자키 의료형무소	257	72	107	25	

주) 법무성 교정국 내부자료(2024년 11월 8일 기준)

교정의무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진료과가 한정되어 있고 의료 장비도 X-ray 등 기본적인 장비만 갖춘 1단계 의료시설(국내 일선 교정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과 달리 <표 7>의 2단계의 의료중점시설은 CT 장비, MRI 등의 의료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에 9개 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1단계 의료시설에서 단기간의 진료가 끝난 수용자는 의료공조를 통하여, 2단계 또는 3단계의 시설로 해당 수용자를 인계 후 진료가 끝난 경우 다시 이감시키지만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2, 3단계 시설에 수용자를 이송하여, 집중 치료를 통해 계호 인력의 낭비를 막고 있다.

5) 일본 2022년 범죄백서 제2편/제4장/제4절/2. 영양, 의료, 위생 등(令和4年版 犯罪白書 第2編/第4章/第4節/2) 내용 발췌

6) 일본 교정국 내부자료(2024. 11. 8. 보고서 작성 기준) 참조

예를 들어 1단계 일선기관의 장이 2단계 의료시설의 장에게 공조 진료를 의뢰하면 의뢰받은 시설의 장은 진료 일정 등을 협의하여 허가를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실제로 3단계 의료전문시설인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는 상당한 수의 의료 공조 건수를 맡고 있는 중이며, 2024년 5월 7일부로 개칭한 서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구 오사카의료형무소)도 이에 못지않게 일본의 서부 쪽 교정기관들의 공조 진료를 맡고 업무 부담을 덜게 될 예정으로 보인다.

<표 7> 의료중점시설 현황

(단위 : 명)

명칭	수용정원	수용현원	직원정원	의료직원
삿포로 형무소	2,515	1,292	339	23
미야기 형무소	1,020	678	305	29
후추 형무소	2,668	1,990	619	32
도쿄 구치소	3,010	1,781	756	26
나고야 형무소	2,427	1,625	452	40
오사카 형무소	2,519	1,605	526	15
히로시마 형무소	1,476	739	304	21
타카마츠 형무소	1,232	811	245	14
후쿠오카 형무소	1,808	1,141	390	28

주) 일본 교정국 내부자료(2018년 9월 30일 기준)

이와 같이 국내의 시설 및 인력 현실을 연수국과 지금까지 간략히 비교해 보았다. 국내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차 의료 서비스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교정전문병원의 설립, 의료시설 지원 등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연수국인 일본처럼 국가 재정으로 수용자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교정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우리도 일본의 교정의료센터처럼 설립되어 운영한다면, 자비 진료, 건강보험, 형집행정지 등의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차 말하자면 교정병원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마찰과 국가 예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외부 진료와 형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하지만 언젠간 다가올 선진 교정행정의 흐름에 대비하여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검토하는 방향이 거시적으로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III. 일본의 의료전문시설의 종류와 체계

1. 동일본성인교정(東日本成人矯正)의료센터의 개요

가. 동일본교성인교정의료센터는 1878년 가나카와현 감옥 하치오지 지부를 기반으로 개청하여, 1895년 현재의 도쿄도 하치오지시로 이전 후 1951년 4월 하치오지의료형무소로 독립, 1966년 4월 후생성의 병원 지정 및 간호조무사양성소를 개설하였다. 1968년 11월부터 1980년 11월까지 12년간 전체를 재건축하였고, 1979년 7월부터 여자 수형자의 수용을 개시하였다. 2018년 1월 도쿄 아키시마시로 이전하여, 현재 이름으로 개칭한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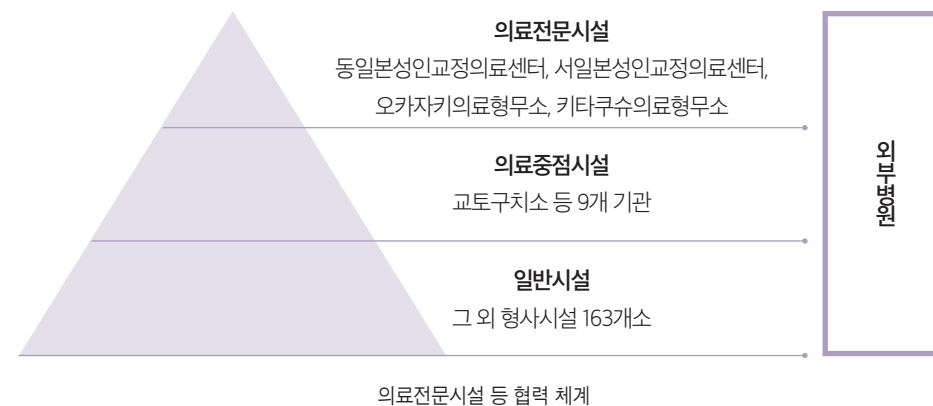
동일본 지부의 교정시설(형무소, 소년형무소, 구치소)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받아서, 병원 기능을 하고 있는 형사시설이며, 일본의 의료형무소는 한국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과·정형외과·정신과 등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의가 의료관계직원과 협력하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와 계호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의료전문시설이라고 불리는 의료형무소는 일본 전국에 4개의 형무소[도쿄(동일본센터), 오사카(서일본센터), 오카자키, 기타큐슈]가 있으며, 의료형무소보다 설비는 다소 모자라지만, 중점적인 의료처우를 하고 있는 의료중점시설로서 전국의 9개의 형무소(삿포로형무소, 미야자키형무소, 후츄형무소, 나고야형무소, 오사카형무소, 히로시마형무소, 다카마츠형무소, 후쿠오카형무소, 도쿄구치소 등)이 있다.

의료형무소의 본래 기능은 1차 및 2차 시설에서 집중 치료가 힘든 신체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공조 협조를 받아들인 뒤 동 센터로 이송되어 완치되면 본래 교도소로 이감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병원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그 외의 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모든 형사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형사시설의 의료적 기능, 피라미드 상의 3단계로 구분하여, 의료인원과 의료기관을 각 단계로 구분하되 의료수준의 격차를 설계해 서로에게 연계를 협력하는 등 계층형의 내부 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3단계 구조의 내부 의료 체제에서 제일 밑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시설이다. 초기진료를 중심으로 비교적 경증인 질병의 치료를 실시한다.⁷⁾ 아래 그림과 같이 모든 의료시설에서는 외부병원과의 밀접한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처럼 외부병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알 수가 있다.



나. 동일본의료성인교정센터의 심볼마크는 소재지인 아키야마시의 공식 캐릭터를 채택하여 고래의 모티브로 간호사양성소를 상징하는 간호사모를 쓰고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동일본의료성인교정센터 심볼마크

다. 조직도

조직도를 살펴보자면, 센터장은 교정의무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고 총무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큰 틀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특성을 지닌 만큼 의료부에서는 모든 과장이 의무관이다. 후술할 간호조무사 양성부는 이 시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 中根憲一, レファレンス 矯正医療の現状と課題(2007) p96, 발췌

센터장	총무부장	사무과장	문서, 명적, 지문, 통계, 인사, 연구 등
		경리과장	세입, 세출, 영치품, 물품구입, 보관 등
		조사관	모니터링, 참관, 취재대응, 지역활동 등
	처우부장	수석교정처우관	처우, 작업실시, 경비, 보안 등
		수석교정기획관	작업기획·운영, 개선지도, 종교교실 등 처우조사, 작업지정, 출소 시 보호 등
	의료제1부장	보건제1과장	일반위생, 방역, 약제 등
		보건제2과장	교육, 연구, 홍보 등
		간호제1과장	요양, 진료 보조, 병실 내 간호 등
		간호제2과장	진찰실, 수술실 내 간호 등
	의료제2부장	의료제1과장	정신과
		의료제2과장	내과
		의료제3과장	외과·치과 구강외과
		의료제4과장	마취과
	간호조무사양성부장		(간호조무사 육성)
	동일본의료센터시찰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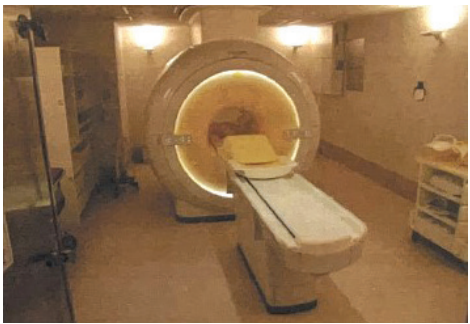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 시설의 안내(2024) 발췌

라. 의료 서비스 체제

초기에서 회복기, 말기까지 폭넓게 의료를 제공한다. 종합병원급 시설로서 진료 병동은 내과, 외과, 정신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치과, 재활치료과, 마취과(여기까지의 8개 진료과는 의사가 상주함), 정형외과, 안과, 부인과, 이비인후과, 피부과(여기까지 5개 진료과는 주간 근무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시설은 MRI, CT, 초음파진료, 인공투석장치 등 의료기기 등이 완비되어 있고, 외과(간, 비장은 제외), 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의 수술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화학요법 등으로 항암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수술실은 총 3개가 있음



MRI실은 동 센터와 서일본의료센터 1대씩 구비



총 25석의 인공투석실, 5석은 별실에 구비



CT 장비

법무성 제공

수용대상자는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된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을 포함한 여러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초범, 누범, 조직폭력단, 장기수, 외국인, 여자, 고령자 등 다양하고, 총수용 정원은 580명이다.

암, 심장병, 뇌경색, 뇌출혈, 코로나19 등 신체질환을 포함하여 수형자가 약 70%, 조현병, 약물중독, 우울증, 중증 발달 장애, 섭식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수형자가 약 30% 수용되어 있다. 또한, 총 440개의 이상의 병상을 구비하고 있다.



의료센터 주복도 전경

일본의 형무소의 수용률은 정원의 50%를 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의료형무소는 그보다 낮은 비율로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형무소에는 공안직과 의료 직렬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간호직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이곳은 병원 기능을 좀 더 살리고자 기본적인 공안 직렬의 분업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 있다.

동일본성인교정의료센터의 참관일(24. 11. 8)을 기준으로 인원수는 공안직 253명이며, 의료 인력은 165명이다.

공안직은 형무관, 작업전문관, 교육전문관, 조사전문관, 복지전문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종사자는 의사 24명, 간호사 125명, 약제사 5명, 임상심리사 3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작업치료사 2명, 임상공학기사 1명,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당직 직원으로 행정직원 1명, 주간 근무 직원으로 사회복지사, 정신보건복지사, 처우카운셀러, 취업지원스텝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정기 인사로 정복직원의 이동이 종종 있지만, 의료직원의 이동은 형무관 등 공안직보다 많지 않다고 한다. 눈여겨 볼 운영 체제로 이곳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일반병원처럼 재활치료를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치료는 주로 뇌졸중, 정형외과 수술 후, 폐용증후군⁸⁾으로 진단받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능력(앉기, 서기, 걷기 등)의 회복과 유지, 장애 예방을 하기 위해 치료 체조 외의 운동을 시키고 전기자극, 마사지, 찜질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고령화가 진행됨으로서 출소 후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보내도록 시설 내의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높게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작업치료에서는 주로 조현병, 섭식장애, 치매, 발달장애 등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환자의 재활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섭식장애 질환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섭식장애는 체중에 대한 강박 등의 심리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취식행동 이상을 말하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주로 거식증과 과식증의 총칭으로 극단적인 식사 거부와 과도한 양의 섭취를 동반하여, 환자 건강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인간관계의 문제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주로 사회성, 커뮤니케이션이 부족이 원인으로 보이며, 알코올의존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8) 어떤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과도하게 안정을 취하거나, 본래 지니고 있는 기능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여 전신의 각 기관,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함.

이 증상의 60~80%는 손목을 굽는 자해행위, 알코올, 약물남용, 손톱 물어뜯기, 탈모 등의 양상을 보인다. 또한 요즘은 섭식장애와 상습절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이 환자들은 불합리한 사고에 성격편향(강박증 등)이 강해, 취식행동의 이상을 지적하여도 이에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교정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시설 내에서는 수용자에 대해 배식 정량이 있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지만, 배식받은 것을 은닉하여 섭취한 식사를 토한 다음 다시 섭취하는 이상행동을 하는 환자도 있다고 한다. 치료 방법으로는 행동제어를 이용한 인지행동치료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애에 대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타큐슈 의료형무소 부분에서 다룰 예정이니 후술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의료형무소는 일반병원의 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된다. 법무성의 소속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점도 우리 교정시설에 입소된 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으로 보인다.

동 센터의 핵심적인 주목할 만한 제도로써 동 센터에서는 1966년부터 개설된 중간호사(간호조무사) 양성소를 운영하고 있어, 전국에서 센터로 근무를 명받은 형무관과 법무교관 등의 교정 직렬 직원이 간호조무사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관 당일 3층이 이론 수업실, 4층 실습실로 양성소로 운영되고 있었고, 약 57명이 수강 중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1,1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로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곳에서는 승진에도 가점이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의료과를 기피 부서로서 생각하는 직원이 더러 있다. 게다가 일선기관 내의 열악한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힘든 업무 환경에 비해 근무평점도 낮게 받는 부서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처럼 승진 가점과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최선의 길이라고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동 전문시설 같은 곳이 설립되어 운영하게 된다면 간호 자격을 가진 직원 수를 자연스레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곳은 교정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임상 실습은 외부의료기관이나 동 센터에서 실시하고, 2년간 학업만을 전념해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학업을 받으면서 현직으로 일하는 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졸업과 동시에 면허취득 후 1년 간의 연수 기간을 받도록 하고 있고, 동 센터나 서일본성인의료교정센터(구 오사카 의료형무소)에 배치된다. 실무연수가 종료된 후 각자 출신의 교정시설로 복귀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수용자 건강관리, 질병 예방, 진찰의 보조 등 교정 의료의 일선을 담당한다.

교정 기동순찰팀(CRPT) —— 직원의 통합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박정호
수원구치소 보안과 교감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질서 유지와 소란·난동 진압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인 기동순찰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직무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규모와 빈도를 측정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서 기동순찰팀이라는 특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로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기동순찰팀 전체 직원 356명 중 응답자 301명을 대상으로 교정사고 노출 경험, 직·간접 피해 경험,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다.

먼저, 직접적 직무상 위험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전체 팀원의 94% 이상이 수용자의 자해 장면을 목격하였고, 97%가 수용자의 소란·난동을 제압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약 80%의 팀원이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으며, 약 90%가 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 신체적 부상을 입은 비율도 64%에 달했으며, 96%의 응답자가 수갑 등 보호장비 사용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동원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측정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76%의 팀원이 “업무 중 언제든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다양한 형태의 직무 관련 불안을 호소하였다. 분석 결과, 이러한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모두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적 위험보다 간접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기동순찰팀의 직무 특성이 단순히 외적 위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불안과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동순찰팀의 직무상 위험을 완화하고 근무자의 처우 개선 및 피해 트라우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제어 : 교정시설 기동순찰팀, 교도관 폭력피해, 교도관 직무스트레스, 교도관 직무상위험, 수용자폭행



I. 서론

교정시설은 법과 질서가 엄격히 유지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자살·폭행 등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근무환경이다.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의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교정통계연보(2023)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교정사고는 1,527건, 징벌 건수는 23,583건에 달했고, 최근 10년간 교도관 대상 고소·고발은 7,548건, 인권위 진정은 41,024건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교정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은 교정사고와 규율 위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기동순찰팀은 수용자의 도주, 난동, 폭행 등 사건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현장을 제압하고, 평상시에는 기초질서 단속과 상습 규율위반자 관리 등을 전담한다. 이로 인해 일반 교도관보다 신체적 위험뿐 아니라 고소·고발, 인권위 진정 등 간접적·심리적 위험에도 빈번히 노출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일반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였고(김종배 외, 2022; 윤옥경, 2023; 이수정 외, 2005), 기동순찰팀과 같은 특수 직무집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일부 연구에서 직무위험이 교도관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으나(남재성, 2015; 윤옥경/이수정, 2004, 2005), 기동순찰팀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하다.

특히 교정시설 과밀화와 정신질환·마약사범 증가로 교정사고가 늘어나면서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심화되고 있으며, 기동순찰팀은 교정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높은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위험성과 스트레스 수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조직의 예방적 대응, 근무환경 개선, 인력 관리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경험하는 직접적·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교정현장의 대응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정환경과 기동순찰팀의 업무

교정시설은 징역형·금고형·구류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형사피의자·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일상적으로 소란, 난동, 폭행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형사입건 송치 기준 교정사고는 총 1,527건이었으며, 이 중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도 109건에 달했다. 또한 수용자 간 성범죄, 금지물품 반입, 기물파손 등의 사건도 466건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형사입건 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며, 실제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규율 위반 건수는 징벌부과 기준 23,583건에 이른다. 그중 입실 거부(30.9%), 수용자 간 폭행(21.7%), 소란 등 생활방해(12.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교정시설이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고위험 환경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처우 불만을 이유로 고소·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남용하여 교도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3 ~ 2022)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건수는 7,548건, 피소된 교도관 수는 16,372명에 달했으나, 실제 기소된 건수는 8건(0.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은 41,024건이었으나, 권고 결정이 난 사례는 147건(0.36%)에 불과했다. 이는 권리구제 제도가 상당 부분 교도관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는 시설 운영과 국민 안전을 위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국가주요시설인 교정시설의 질서유지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건사고의 최전선에서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바로 기동순찰팀(CRPT: Correctional Rapid Patrol Team)이라고 한다.

2009년 4월에 창설된 기동순찰팀은 유도·검도·태권도 3단 이상의 무술유단자나 응급구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한 기관에 최소 3명 이상을 고정배치 해야 한다. 현재는 각 교정시설의 규모에 따라 4명에서 13명까지로 편성되어 있다.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동순찰팀의 주요 임무는 △도주·소란·난동·폭행·기물파손 등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수용동·작업장 등 주요 장소 순찰 및 질서 단속, △엄중관리대상자·상습규율위반자 관리, △불순세력 출현 시 방호·수색·체포 등이다. 이들은 가스총, 테이저건, 접이식 교도봉, 수갑, 바디캠, 방패, 보호장비 등을 상시 휴대하고 일반 교도관과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순찰팀은 이렇듯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교정사고의 최전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준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팀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동순찰팀의 직무상 위험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교도관의 직무상 위험

교도관은 수용자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의 안전과 사법체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의 근무환경은 특수하여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뿐 아니라 직접적·잠재적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남재성(2015)은 이러한 위험을 신체적·언어적, 행정적·사법적, 직무 특성에서 기인하는 신체·정신적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국내외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직무위험은 수용자 폭력이다(윤옥경/이수정, 2004, 2005; 윤옥경, 2006, 2023; 이수정 외, 2005). 폭력은 신체적 공격뿐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해 교도관에게 신체 손상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한다. 또한 수용자 간 폭력, 소란, 난동 등 교정사고도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윤옥경·이수정(2004)은 교도관이 언어적·정서적 폭력뿐 아니라 오물 투척, 침 뱉기 등 물리적 폭력에도 빈번히 노출됨을 보고하였다.

국외 연구 또한 유사한 결과를 제시한다. 수용자 폭력과 위협은 교도관의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지속 보고되었으며(Schaufeli, 2000; McCarthy, 2012; Whiting, 2022), Laureano-Morales 외(2024)는 교도관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고 특히 부상 위험이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교도관의 위험은 직접적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간접적 위험으로 작용한다. 이창한(2008)은 보호관찰관 469명 중 62%가 실제 피해 경험이 없어도 폭력 가능성에 불안을 느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보복 두려움·무력감과 결합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 윤옥경(2023)은 교정사고, 폭력 피해, 고소·고발 및 괴롭힘, 잠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교도관의 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저하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윤옥경·이수정(2005)은 교도관 다수가 신체적 위험(94.3%), 자살·자해 등 교정사고(93.5%), 고소·진정(91%)에 대한 불안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3. 교도관의 직무상 스트레스

교도관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수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Finney et al., 2013).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직무만족도 저하, 조직 효율성 약화, 나아가 교정시설의 안전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진다.

국내에서는 주로 일반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상 위험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직무상 위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수용자에 의한 폭행을 중심으로 교도관이 경험하는 교정사고와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구적 연구인 윤옥경과 이수정(2004)은 전국 교도관 420명을 대상으로 수용자 폭행 피해 경험과 탈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피해 경험이 만성적 탈진과 직무만족도 저하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2005년 후속 연구에서 90% 이상이 정서적 폭력, 80% 이상이 언어적 폭력, 50% 이상이 오물 투척·침 뱉기 등, 20% 이상이 직접적인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교도관의 직업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수정 외(2005) 또한 수용자 폭력이 교도관에게 심각한 PTSD와 만성적 소진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는 직무스트레스의 전반적 요인으로 확장되었다. 김현정(2006)은 교도관의 사회심리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고, 류종천(2005)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피로도의 상관관계를 밝혀 교도관 업무가 신체적·정신적 웰빙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양정미와 문승연(2016)은 직무소진이 정신건강 악화와 행복감 저하로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최명희와 박현주(2018)는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신경증 성향이 높을수록 그 영향이 심화된다고 보고했다. 김종배와 홍정순(2022)은 역할 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이 이를 매개한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수용자 폭력 및 상호작용이다(윤옥경/이수정, 2004, 2005; 이수정 외, 2005; 윤옥경, 2006). 수용자의 위협 경험은 교도관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을 유발한다. 또한 조직적 요인 역시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실태조사」(2025)에 따르면, 과밀수용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박혜련 외(2009)는 교도관들이 보안 유지라는 기본적 업무와 수용자 교화라는 역할 사이에서 이중적 역할 갈등을 겪으며, 업무 상황의 불확실성과 지침 부족이 추가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국외 연구 또한 교도관 직무스트레스의 광범위성을 입증한다. Huckabee(1992)는 수용자 재범으로 인한 무력감이 초기 스트레스 요인임을 지적했다. Schaufeli(2000)는 종합적 문헌 분석을 통해 역할 갈등, 업무 과부하, 대인관계 어려움, 낮은 사회적 지위 등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그 결과 직무소진·이직·정신·신체 질환이 나타난다고 정리하였다. Laureano-Morales 외(2024)의 푸에르토리코 연구는 교도관들이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하며, 특히 피로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임을 밝혔다. 나아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은 직무소진 가능성을 약 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연구에서는 역할 갈등과 비행(Dula, 2022), 높은 요구·낮은 통제 환경(Whiting, 2022), 수용자 인식의 영향, 조직적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이 탐구되었다. 또한 Claudia 등(2016)의 문헌 연구는 업무 과부하, 자원 부족, 수용자 접촉 정도, 과밀수용, 두려움, 처벌과 교화의 역설 등을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54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단 민영교도소 제외)에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중 기동순찰팀 전원이다. 2025년 현재 교정시설의 정원은 16,716명이며, 이 가운데 기동순찰팀 소속 인원은 356명이다. 조사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전국 기동순찰팀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응답자는 총 307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 누락이나 중복 체크가 많은 6명을 제외한 30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5년 4월 18일부터 동년 5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2. 측정 도구

(1) 독립변수 : 직무상 위험

1) 직접적 직무상 위험

직접적 직무상 위험은 기동순찰팀 근무 중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실제로 경험한 교정사고와 폭력피해의 빈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최근 1년간 기동순찰팀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수용자의 자살 및 자해, 소란과 난동, 수용자 간 폭행, 교도관에 대한 폭행 등 신체적 폭력, 욕설 등 언어적 폭력, 협박·고소·진정 등 정서적 폭력 등 교정본부에서 규정한 교정사고 유형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내용과 응답 결과는 p. 55의 <표 4>와 같다. 응답은 빈도

구간 6구간(없음, 6~10번, 11~15번, 16~20번, 21~30번, 30번 초과)으로 측정되었으며, 각 구간에 점수를 부여한 후 총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직접적 직무상 위험의 경험구간을 1년간으로 한정된 것은 윤옥경(2023)의 일반 교도관 대상 연구와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0문항 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2) 간접적 직무상 위험

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수용자로부터의 직접 피해 경험이 없더라도 향후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인식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폭행 등 사건현장에서 당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불안, 강제력 행사로 빚어질 수 있는 책임에 소재에 대한 불안, 출소자나 수용자 가족 등으로부터의 협박이나 보복에 대한 불안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과 응답 결과는 p. 57의 <표 5>와 같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전혀 없다~매우 많다)로 측정되었으며, 기동순찰팀 근무기간 내 경험과 인식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10문항 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7로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

(2) 종속변수 :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Maslach & Jackson(1981)의 번역·보완된 직무소진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 성취감 저하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본 연구에서는 기동순찰팀 직무 특성에 적합한 문항만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55로 매우 높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교정직 공무원 중 기동순찰팀 직원의 직무상 위험 경험(직접적 및 간접적)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직급, 근무기관 등)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표본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각 변수(직접적

직무상 위험, 간접적 직무상 위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함으로써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직접적·간접적 직무상 위험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기초적인 상관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후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직무스트레스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직접적 직무상 위험과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투입하였다. 아울러 직급, 근무기간 등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포함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R^2)을 검토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4.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경험하는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 2. 이들이 경험하는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 특징 및 주요 변수 기술통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97.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공무원 교과제 인사규정에 따라 기동순찰팀원의

자격요건이 50세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단, 팀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50세 이상도 가능). 학력은 대졸 이상이 8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23년 7월 약 80명의 기동순찰팀 경력 채용자가 임용된 영향으로 보인다. 현 직급은 9급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7급, 8급, 6급(팀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평균 기동순찰팀 근무기간은 2년 3개월로 확인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합계
성별	남	294	97.7	301
	여	7	2.3	
연령	30세 이하	55	18.3	301
	40세 이하	106	35.2	
	50세 이하	96	31.9	
	50세 초과	44	14.6	
	고졸 이하	37	12.3	
최종학력	대졸 이하	243	80.7	300
	대학원 이상	20	6.6	
	5년 미만	109	36.2	297
근무기간	10년 미만	48	16.2	
	15년 미만	41	13.8	
	20년 미만	53	17.8	
	20년 이상	46	15.5	
현직급	6급	43	14.3	298
	7급	93	30.9	
	8급	65	21.6	
	9급	97	32.2	

본 연구가 고려하는 핵심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2>과 같다. 직접적 직무상위험 빈도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68이며 간접적 직무상 위험의 최소값은 10, 최대값은 50이다. 직무스트레스의 최소값은 17, 최대값은 85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직무상 위험(직접)	301	0	68	31.26	13.914
직무상 위험(간접)	300	10	50	32.70	10.179
직무 스트레스	301	17	85	42.25	15.568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에서 고려될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현 직급	CRPT 근무기간	직무상 위험(직)	직무상 위험(간)	직무 스트레스
현 직급	1				
CRPT 근무기간	-.307**	1			
직무상 위험(직)	.038	.237**	1		
직무상 위험(간)	-.003	-.029	.230**	1	
직무스트레스	-.017	-.027	.230**	.674**	1

* : p < .05, ** : p < .01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직접적 직무상 위험과 간접적 직무상 위험, 통제변수로 활용될 직급과 CRPT 근무기간 그리고 종속변수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표 3〉와 같다. 상관관계의 방향을 미루어 볼 때,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기동순찰팀 직원들이 업무상 경험하는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더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2. 기동순찰팀이 경험하는 직무상 위험 실태

(1) 직접적 직무상 위험(교정사고와 폭행 등 피해 경험 빈도)

기동순찰팀 근무 중 지난 1년간 경험한 교정사고 및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응답자의 66%가 수용자의 자살(미수 포함)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용자의 자해를 경험한 비율은 94.4%에 달하였으며, 난동·소란이나 수용자 간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97% 이상으로 나타나, 기동순찰팀이 교정시설 내 고위험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 피해 경험 역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약 80%의 응답자가 수용자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2%는 욕설 등 언어적 폭력을, 88%는 협박 등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64%는 근무 중 실제 부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96%가 수용자 제압 과정에서 수갑 등 보호 장비나 신체적 유흥력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기동순찰팀이 교정사고 대응의 최전선에서 고위험 상황에 반복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표 4〉 직접적 직무상 위험

구분 (교정사고 및 피해경험)	빈도수(%)						
	전혀 없음	5번 이하	6~10 번 이하	11~15번 이하	16~20번 이하	21~30번 이하	30번 이상
수용자 자살 (미수포함)	101 (33.6)	163 (54.2)	25 (8.3)	6 (2.0)	1 (0.3)	4 (1.3)	1 (0.3)
수용자 자해	17 (5.6)	90 (29.9)	82 (27.2)	49 (16.3)	20 (6.6)	11 (3.7)	32 (10.6)
소란·난동 (기물파손)	8 (2.7)	27 (9.0)	25 (8.3)	37 (12.3)	21 (7.0)	23 (7.6)	160 (53.2)
수용자간 폭력 (싸움, 집단폭행 등)	7 (2.3)	20 (6.6)	31 (10.3)	32 (10.6)	33 (11.0)	18 (6.0)	160 (53.2)
수용자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가격, 오물투척 등)	63 (20.9)	137 (45.5)	45 (15.0)	30 (10.0)	9 (3.0)	8 (2.7)	9 (3.0)
수용자로부터의 언어적 폭력 (욕설, 무시 발언 등)	23 (7.6)	74 (24.6)	57 (18.9)	35 (11.6)	29 (9.6)	16 (5.3)	67 (22.3)

수용자로부터의 정서적 폭력 (협박, 고소·고발·진정 등)	37 (12.3)	104 (34.6)	52 (17.3)	31 (10.3)	20 (6.6)	20 (6.6)	37 (12.3)
업무수행 중 보안장비 경험 (가스분사기, 삼단봉 등)	80 (26.6)	109 (36.2)	41 (13.6)	21 (7.0)	10 (3.3)	13 (4.3)	27 (9.0)
업무수행 중 보호장비 경험 (금속보호대, 수갑 등)	11 (3.7)	22 (7.3)	17 (5.6)	32 (10.6)	21 (7.0)	26 (8.6)	172 (57.1)
업무수행 중 신체적 유형력 사용 경험 (소란·난동 제압 등)	13 (4.3)	39 (13.0)	29 (9.6)	35 (11.6)	34 (11.3)	25 (8.3)	126 (41.9)
전체	301(100)						

(2) 간접적 직무상 위험

기동순찰팀 근무 중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수용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을 측정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 결과, 전체의 76%가 다양한 형태의 불안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동순찰팀 직무 특성상 수용자와의 기싸움과 같은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77%의 응답자가 불안이나 부담감을 경험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소란·난동 등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책임 소재(85%), 고소·고발·진정(81%), 보복 위험(70%) 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응답자가 다수였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한 비율도 82%에 달하였다.

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수용자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았다.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 교도관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1%는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일반 교도관들의 기대와 시선으로 인해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73%는 수용동 담당 교도관 등과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표 5> 간접적 직무상 위험

구분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응답자(%)				
	① 전혀 없음	② 없는 편이다	③ 조금 있다	④ 많이 있다	⑤ 매우 많다
사건현장에서 당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불안감	20 (6.6)	35 (11.6)	134 (44.5)	67 (22.3)	44 (14.6)
수용자와의 기싸움에 대한 불안감	26 (8.6)	44 (14.6)	116 (38.5)	62 (20.6)	52 (17.3)
자살·자해 등 사건현장 목격에 대한 불안감	39 (13.0)	58 (19.3)	117 (38.9)	48 (15.9)	38 (12.6)
긴급상황 등 언제 출동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35 (11.6)	35 (11.6)	102 (33.9)	57 (18.9)	71 (23.6)
강제력행사로 빚어질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	25 (8.3)	20 (6.6)	86 (28.6)	77 (25.6)	92 (30.6)
강제력행사 등의 업무로 고소·고발·진정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또는 부담감	19 (6.3)	38 (12.6)	78 (25.9)	77 (25.6)	88 (29.2)
강제력행사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수용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또는 부담감	37 (12.3)	52 (17.3)	105 (34.9)	50 (16.6)	56 (18.6)
출소자나 수용자의 가족 등으로부터의 협박이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또는 부담감	43 (14.3)	47 (15.6)	111 (36.9)	47 (15.6)	52 (17.3)
일반직원들의 기대와 시선 때문에 사건을 더욱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24 (8.0)	32 (10.6)	96 (31.9)	81 (26.9)	67 (22.3)
업무수행으로 인한 수용동 등 담당직원과의 갈등에 대한 부담감	39 (13.0)	41 (13.6)	121 (40.2)	58 (19.3)	41 (13.6)
전체	301(100)				

(3) 응답자들이 경험한 직무상 위험과 폭력 피해의 구체적 사례

앞서 살펴본 양적 조사 결과는 기동순찰팀원들이 경험하는 직·간접적 위험의 빈도와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지만, 피해 당사자의 체험적 실감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교정사고와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동순찰팀원들의 생생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 사례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정서적 폭력, 자살·자해 목격 경험, 기타(고소·고발·진정, 동료와의 갈등 등)로 분류할 수 있다.

1) 신체적 폭력

“수용자에게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당해 2주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의 욕설과 표정이 선명히 남아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압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려 크게 다칠 뻔했고, 이후 수개월간 불안감과 예민함이 지속되어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난동 수용자에게 물려 출혈·교상이 발생했는데, 뒤늦게 HIV 감염자임이 확인되어 3개월간 혈액검사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흥기 난동에 무력감과 탈진감을 느꼈으며, 근본적 대책이 없어 직원이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2) 언어적·정서적·심리적 폭력

“수용자가 제 아내와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가족 살해 협박을 했을 때 극심한 분노와 살인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출동 현장에서 ‘가족을 찢어 죽이겠다’는 협박을 듣고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도 출소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낮선 사람이 뒤따라오기만 해도 놀라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긴장을 느낍니다.”

3) 수용자의 자살·자해 목격 경험

“수용자가 런닝셔츠로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잔상이 오래 남아 괴로웠습니다.”

“자해로 인한 과다 출혈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대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외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수용자가 재차 자해를 시도하여 제압이 더욱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4) 기타(고소·고발·진정, 일반 직원과의 갈등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인권위에 허위신고를 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수용자 진압 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분노와 모멸감을 경험했으며, 수용자를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동료 부상 상황에서 강제력 행사에 대한 책임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난동 상황에서도 ‘기동순찰팀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직원들로 인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3.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급과 CRPT 근무기간을 통제변수로 하고, 직접적 직무상 위험과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각각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가 기동순찰팀원들의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가 p. 61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모델 1은 교정사고나 폭력 피해의 경험빈도를 측정된 직접적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모델 적합도 측면에서 모델 1의 결정계수(R^2)는 .064,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는 .055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의 유의성도 $F = 6.702$ ($p < .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설명력은 약 6.4%에 그쳐 다소 제한적이었다.

먼저, 통제변수로 모델에 들어간 직급과 CRPT 근무기간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동순찰팀 업무가 직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현장 대응을 요구하는 특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직접적 직무 위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292$, $\beta = .261$, $p < .01$), 이는 직접적 위험경험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동순찰팀이 교정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직접 대응해야하는 직무 특성상, 이러한 경험이 심리적·정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델 2는 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독립 변수로하여 분석한 결과로, 모델 1에 비해 매우 향상된 모델 적합도를 보였다. 모델 2의 결정계수(R^2)는 .443, 조정된 결정계수는 .437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의 유의성은 $F = 77.010$ ($p < .01$)으로 분석되어,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이 약 44.3%까지 증가하였고 모델 전체의 예측력 또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제변수인 직급과 CRPT 근무 기간은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가된 변수인 간접적 직무상 위험은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1.022$, $\beta = .665$, $p < .01$), 이는 직접적 직무위험의 표준화계수($\beta = .261$) 보다 훨씬 큰 수치이다.

이는 실제 피해 경험이 없더라도, 수용자나 출소자에 의한 잠재적 보복 가능성, 강제력 행사로 인한 책임 부담,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안감이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기동순찰팀의 직무스트레스가 단순히 실제 피해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불안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정조직 차원에서 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마련할 때, 실제 피해 상황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 직무상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Model 1				Model 2			
	b	S.E	B	t	b	S.E	B	t
상수	42.213**	7.122		5.927	10.120	5.925		1.708
직급	-.943	.876	-.065	-1.077	-.136	.670	-.009	-.203
CRPT 근무기간	-.055	.031	-.109	-1.760	-.005	.023	-.009	-.197
직접 직무위험	.292**	.066	.261	4.434				
간접 직무위험					1.022**	.067	.665	15.183
R ²	.064				.443			
adjusted R ²	.055				.437			
F(p)	6.702(**)				77.010(**)			

*: $p < .05$, **: $p < .01$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 최초로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와 소란·난동 진압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순찰팀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무상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동순찰팀원들은 직·간접적 직무상 위험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가 수용자의 자살을, 94.4%가 자해를 목격했으며, 약 80%가 신체적 폭력 피해를, 92%가 언어적 폭력 피해를, 88%가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비율이 64%에 달했으며, 간접적 위험 요인인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 또한 76%의 팀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

조사 시점이 등이 동일하지 않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가장 최근의 선행 연구인 윤옥경(2023)의 연구에서 같은 경험기간(1년) 동안에 일반 교도관들이 겪는 피해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자살은 42%, 자해는 67%의 직원들이 목격을 하였고

수용자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67%,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은 약 68%가 경험을 하여 일반 교도관들의 피해경험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이와 비교해서도 기동순찰팀이 경험하는 피해는 훨씬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두 번째 관심사는 이러한 직무상 위험이 기동순찰팀 직원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높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실제 직접적·간접적 직무상 위험 모두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동순찰팀에 대한 수용자들의 폭력은 그들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정시설 전체 수용질서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이수정 외(2005)는 수용자로부터의 폭력 피해가 교도관에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윤옥경(2006)의 연구에서도 수용자 폭력 경험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교도관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분석 결과, 직접적 위험뿐 아니라 간접적 위험 역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피해 경험보다 ‘잠재적 피해 가능성’에서 기인하는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이 직무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교정사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동순찰팀이 단순한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보복·고소·진정 등 간접적 위협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기동순찰팀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신체적 위험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장비 도입과 피복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기동순찰팀은 높은 집단효능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기 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위험수당 신설과 같은 실질적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상담·지원 프로그램(EAP), 역할 갈등 완화를 위한 업무 매뉴얼 개발, 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조직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 사례처럼 마음챙김, 인지행동치료(CBT), 동료 멘토링, 스트레스 관리 훈련 등의 증거기반 개입을 교정현장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기동순찰팀은 교정공무원 중에서도 무도 유단자 등 일정한 체력과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된 특수집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교도관과 비교할 때 자기효능감, 성격적 특성, 조직적 성향 등에서 일반 교도관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조직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기동순찰팀의 선발 특성과 개인적·조직

문화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정현장의 특수 직무집단인 기동순찰팀의 직무위험 실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교정정책 수립과 인력관리, 정신건강 지원체계 마련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동순찰팀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증거기반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국내논문

김종배/홍정순, (2022), '교정공무원의 역할스트레스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교정연구 제32권 제2호, pp.58-86, 한국교정학회.

김현정, (2006),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강증진학 석사학위논문.

남재성, (2015), '교정분야 공무원의 직무상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60호, pp.45-86, 한국공안행정학회.

류종천, (2005), '교도관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피로도 및 관련요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혜련/박민선/이빠라/정선아, (2009), '교도관의 정서적 소진과 직무만족, 역할갈등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태도 차이에 따른 변인간 관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제22권 제2호, pp.319-343, 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양점미/문승연, (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소진과 행복의 관계에 미치는 정신건강의 매개 효과', 교정연구 제26권 제3호, pp.27-56, 한국교정학회.

유선호, (2009), '교정행정 발전과 교정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윤옥경/이수정, (2004), '교정공무원의 폭력피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교정연구 제25호, pp.7-34, 한국교정학회.

_____, (2005), '수용자-교도관 폭행의 유형과 실태: 교도관의 관점',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pp.107-13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_____, (2006),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유발요인과 해소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호, pp.79-107, 한국공안행정학회.

_____, (2023), '교정사고와 폭력 피해 경험이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정연구 제33권 제1호, pp.3-28, 한국교정학회.

이수정/윤옥경/홍성삼, (2005), '교도관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수용자 폭력 피해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2호, pp.327-344, 한국심리학회.

이창한, (2008), '보호관찰공무원의 폭력피해 경험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호, pp.171-200, 한국공안행정학회.

최명희/박현주, (2018),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스트레스, 성격유형과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제54호, pp.87-110, 한국교정복지학회.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pp.119-137.

_____, (2025),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수용자 처우 및 계호업무에 관한 지침, (법무부 훈령 제1543호, 2024. 11. 01. 개정), 제181조-제187조.

■ 외국논문

Ciaudia & Simone & Patricia, (2016). 'Psychological distress and work stress in correctional officers: a literature review', Revista Ciência & Saúde Coletiva 21(7), pp.2135-2146.

Dula, D., (2022). Role Conflict, Work-Related Stress, and Correctional Officer Misconduct(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Finney, C. & Stergiopoulos, E. & Hensel, J. & Bonato, S. & Dewa, C. S., (2013). 'Organizational stressors associated with job stress and burnout in correctional officers: a systematic review', BMC Public Health, 13(1), p.82.

Huckabee, R. K., (1992). 'Correctional officer stress: How bad is it?', Corrections Today, 54(7), pp.162-165.

Laureano-Morales, L. & Saldaña-Santiago, N. & Malave-Velez, N. & Quiles-Aponte, J. & Travieso-Perez, S. & Diaz-Algorri, Y., et al., (2024). 'Work stress and burnout among active correctional officers in Puerto Rico: A cross-sectional study', PLoS ONE, 19(10), pp.1-12

McCarthy, W. D., (2012). Causes of Correctional Officer Stress and Its Consequences (Master's thesis, Indiana State University).

Schaufeli, W. B., (2000). 'Job stress and burnout among correctional officer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7(1), pp.19-48.

Whiting, A., (2022). Stress on Correctional Officers in High Demand and Low Control Work Environments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마약류 수형자의 —— 인지적·정서적 재범 촉발 특성(상)

-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접근 -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교감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1.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
 - 2. 재발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
 - 3. 최초의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
 - 4.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형자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재범 촉발 요인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마약류 수형자 8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마약류 수형자들의 실제 경험을 세밀히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마약류 사용과 관련하여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 재발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 최초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 등 총 4개의 범주로 나타났고, 이것은 21개의 주제 결집과 36개의 주제 분리 등으로 분석되었다.

범주별 내용을 보면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에서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 약물 사용으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 반복되는 수형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이고, 재발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에서는 중독에 대한 몰이해와 자기 과신,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려는 심리, 성생활을 위한 약물 사용의 정당화 등이 나타났다. 최초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에서는 투약을 하지 않으려는 이성적 저항, 현실을 왜곡하는 자기 설득, 약을 사용한 직후의 즉각적인 후회 등이,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에서는 모든 노력이 무너졌다는 좌절감, 재발 사실을 인정하는데 따른 내적 갈등, 재투약 이후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향후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초점을 두어야 하는 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재발 방지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다루어야 하는 마약류 사범의 인지적·정서적 특징을 제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마약류 수형자, 교정시설, 질적연구,
Colaizzi의 현상학, 재범 예방



I. 서론

마약류 문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단순히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엔 마약류 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세계 마약류 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1년도 전 세계인 17명 중 1명이 마약류를 사용했고,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23%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마약류 범죄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 질적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 특수집단, 조직, 연예인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마약류를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사용자가 다양해지고 연령이 낮아지면서 더욱 복잡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마약류의 중독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마약류 사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유숙경 등, 2023).

마약류 문제가 확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마약류를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점이 주요하다. 과거에는 직접 대면하여 현금거래를 하는 고전적인 방식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SNS나 다크웹상 커뮤니티를 이용한 마약류 매매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설재용 등, 2023). 이와 같이 비대면 방식 및 온라인 방식으로 마약 거래의 유형이 변함에 따라, SNS나 가상화폐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이 몇 번의 인터넷 검색만으로 예전에 비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사용이 젊은 층에서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조정우, 2019).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률 또한 마약류 사범 증가에 따른 중요한 부분으로 반영한다. 법무부 자료(교정통계연보, 2024)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의 약 40%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마약류 수형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수형자에게 많은 회기로 구성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만 회기가 많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적으로 재범 촉발 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집단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 개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너무 다양한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재범 촉발 요인을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외에서 마약류 사범 치료에 적용하는 이론 중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희천, 2018; Marlatt & Donovan, 2005).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심리적인 문제에 기여하는 인지, 정서, 행동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상자가 스스로 인지를 조절하여 문제의 본질

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방법이다. 흔히 행동적 기법을 함께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이러한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obson & Dozois, 2019).

마약류 사범은 일반적으로 충동 조절 문제, 높은 스트레스 민감성,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Kandel, 1992). 특히, 마약류 사용이 스트레스 해소나 감정 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기제와 관련이 있다(Skinner, 1953). 그러나 기존의 마약류 사범 대상 인지행동치료를 포함하는 재활 치료프로그램은 이러한 마약류 중독자의 변화된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미비로 높은 재범률의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 재범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마약류 수형자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후 마약류 사범들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마약류 수형자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재범을 촉발하는 심리적 기제와 경험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마약류 수형자의 단약 및 재발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조화하고, 내면의 정서와 사고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재범의 심리적 원인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교정시설 내 맞춤형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마약류 사범의 현실태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의 세계 약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마약류 사용자는 약 3억 1,600만 명으로, 이는 15-64세 인구의 6.1%에 해당하며,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세계 인구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UNODC, 2024). 미국 국립 약물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또한

최근 몇 년간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 마약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NIDA, 2022).

한국의 경우,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2025)에 따르면, 2024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도보다 16% 감소하였으나, 20~30대가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마약류 사범도 649명(2.8%)으로 보고되어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 마약류 사범의 증가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2024년 전체 마약류 수형자 중 여성 비율은 414명(12.1%)으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범죄에서는 여성 비율이 26.1%로 보고되었다. 이는 처방약 오남용, 다이어트 목적 약물 사용 등 비의도적 경로를 통한 여성 중독자의 증가 가능성을 시사한다(홍경아, 2023).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가 출소한 후,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의미하며, 재범률을 파악할 수 있는 수치이다. 교정통계연보(2025)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출소자 재복역률이 강도 64명(20.4%), 성폭력 374명(15.9%), 폭력행위 986명(26.0%), 마약류 515명(32.1%)이고, 전체 범죄자의 평균 재복역률 22.6%보다 마약류 사범 재범률이 9.5%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보여준다.

김창우와 박은영(2024)의 연구에서는 마약류 수형자의 투약 기간, 범죄 횟수, 정신과 진료 경험, 징벌 횟수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지적되었다. 특히 정신과 진료 경험과 범죄 횟수는 약물 남용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무직자 비율이 3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단순 노동직과 회사원 순이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약물 사용과 심리적 저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학력은 고졸 이하가 59.6%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인지 통제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 해석력 등의 부족이 중독 취약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호, 2019).

대검찰청 자료(2024)에 따르면 2023년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7,611명으로, 2019년(16,044명)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형자는 2013년 1,380명에서 2023년 2,492명으로 급증하였다(법무부, 2024). 이에 따라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2025년부터는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군산·안양교도소에 이어서 마약류 심화 과정 교육 시설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러한 통계들은 마약류 사범의 연령, 성별 구조 및 심리적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많은 수형자들이 약물 의존과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형사처벌만으로는 재범 억제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심리적 기제 분석을 위한 과학적 자료 구축은 효과적인 개입과 재활 정책 마련을

위한 필수 과제로 남아 있다(김거성, 2015). 따라서 중독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재범 고위험군에 특화된 개입,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심리학적 치료 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형자의 심리프로그램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2001년부터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현재는 치료 단계별로 기본과정, 집중과정, 심화과정, 회복이음과정으로 구분되며, 수형자의 중독 수준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다(법무부, 2024). 기본과정은 각 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집중과정은 2011년 기준 8개 기관에서 시행되었고, 심화과정은 2017년부터 안양교도소와 군산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후 2023년에는 회복이음과정이 새롭게 신설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2024년부터는 청주여자교도소 등 전국 4개 전담 교정시설로 확대되어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512호)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최대 200시간 범위 내의 교육 이수명령 또는 재활 교육 병과(併科)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는 이수명령 부과 시간에 맞춰 기본과정(40시간), 집중과정(80시간), 심화과정(120시간), 회복이음 과정(160시간)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차등 운영하고 있다(법무부, 2024).

각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은 이수명령 대상자 외에 수형자의 범수, 교정생활 태도, 범죄 유형 및 재범 위험성(CO-REPI)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마약류 사범 재활팀에서 1차 선정 후, 각 교정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각 소 심리치료팀에서 결정한다. 재범 위험성(CO-REPI)이란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재범 위험을 구분한 변인이다. 등급이 높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복이음과정은 기존 심화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명령이 부과된 수형자 외에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징벌 이력이 1회 이하이며, 단약 의지가 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의서 및 서약서 제출 이후 해당 교도소의 교육담당 회의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징벌이란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로, 처우 제한, 서신 수수 제한, 작업장려금 삭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법무부, 2024).

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과정은 이수명령 40시간이 병과된 수형자 또는 CO-REPI 1~3등급의 중·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동기강화상담, 중독 원인 분석, 사전·사후 평가, 개인 면담, 집단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치료 동기 고양과 중독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다. 집중과정은 기본과정 내용을 포함하되, 여기에 개별상담과 인지행동치료(CBT) 기법이 추가되어 수형자의 인지적 왜곡을 교정하고 자기조절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다. 심화과정은 집중과정에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표현예술치료가 포함되어 정서적 치유와 자기표현 촉진을 목표로 한다. 회복이음 과정은 심화 단계를 넘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자조모임, 맞춤형 재활상담, 12단계 회복 촉진 상담, 치료공동체, 직업재활 활동, 지역사회 연계 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출소 이후 사회적 재적응과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다(법무부, 2024).

이러한 교정시설 내 재활프로그램은 도입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실제로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상당수 수형자들은 자발적인 치료 의지 없이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치료의 내면화와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수형자의 정신건강 상태나 개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치료가 부족하며, 출소 이후에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재범 위험 환경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최민석, 2019; 김정수 등, 2021).

따라서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강화 전략(MI, Motivational Interviewing)의 적극적인 도입, 둘째, 수형자의 성격 특성, 정신과 진료 이력, 인지기능 등을 반영한 개별 맞춤형 치료 설계, 셋째,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사후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학적·사회적 개입이 병행될 때,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형자의 성공적인 회복과 재범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3. 마약류 사범 대상 인지행동치료(CBT) 프로그램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심리치료 개입 중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그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CBT는 Beck(1976)의 이론에 기반하여, 개인이 가진 비합리적 신념과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치료법이다. 인지행동치료는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이 상호작용하며,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적응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심리치료

접근법이다(Beck, 1976). 이 치료법은 먼저 인지와 행동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의 사고방식이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비합리적 신념 및 왜곡된 사고 수정으로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s)와 인지적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사고를 형성하도록 돕는다(Beck, 1976). 또한 행동 수정 기법 활용으로 노출 치료, 역할 연기, 문제 해결 훈련 등의 기법을 통해 행동 패턴을 변화시킨다(Meichenbaum, 1977).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접근 방법으로 명확한 치료 목표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자기효능감을 강화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한다(Bandura, 1986).

특히 마약류 수형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왜곡, 도덕적 해이, 충동조절 장애는 중독 유지와 재발의 주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고 교정하는 데 CBT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지적 요인을 통해 개인이 약물 사용을 정당화하는 방식이나 유혹에 대한 대처 방식을 이해하고 수정하도록 하고, 정서적 요인을 통해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현정 등, 2015). 또한 각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따라 치료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진 환자는 그에 맞는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정서적 문제를 가진 환자는 감정 조절 훈련을 받을 수 있다(이소영 등, 2018).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약물 사용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장안식 등, 2016). 이는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직업적 성취, 사회적 기능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약류 사범 대상 인지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현정 등(2015)은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CBT 기반 개입이 감정조절 능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자기효능감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인지적 재구성 반복 훈련’은 수형자의 자기조절 역량 강화를 돕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는 마약류 사범의 회복 과정에서 인지 구조의 변화가 정서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중현 등(2013)의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CBT를 적용한 결과, 충동성과 우울 수준의 감소, 단약 자기효능감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치료적 개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 연구는 자기 보고식 측정 도구만을 사용한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치료 효과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면담 및 제 3자 관찰 등의 보완적 평가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나연 등(2019)은 여성 메스암페타민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독자는 약물 관련 단서에 주의가 자동적으로 집중되는 ‘주의 편향(attentional bias)’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약물 갈망(craving), 정서적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재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치료에서는 주의 편향 조절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경인지 기반 개입이 CBT와 통합될 경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Elison-Davies 등(2022)은 미국 오하이오주의 교정시설에서 2,187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Breaking Free from Substance Abuse'라는 디지털 기반 CBT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메스암페타민 의존도, 우울·불안, 삶의 질, 사회적 기능 등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특히 세션 참여 횟수와 효과 간의 정적 상관관계(dose-response effect)가 확인되었고, 대인관계 갈등 등 기존의 심리·사회적 위험 요인이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보고되었다. 이는 CBT 프로그램의 개별화와 고위험군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제 CBT 프로그램의 적용 과정에서는 자발적 참여 부족,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개입의 미비, 재발 촉진 요인에 대한 대처 전략의 부족 등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짧은 치료 기간 내에 약물 갈망을 유발하는 내·외적 단서나 감정적 촉발 상황에서의 자기통제력 회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CBT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독자들이 경험하는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세분화하여 정밀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개별화된 치료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수형자의 단약과 재투약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고 및 정서 반응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중독 유지 및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면적 갈등과 인지 왜곡의 특성을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마약류 수형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재범 방지 및 장기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방법

1.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와 필요성

본 연구는 교도소 내 마약류 수형자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 중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도출하는 데 강점을 가진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주목하고,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한 자료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결집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내고, 주제 묶음 작업인 주제 결집 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수형자들의 개인의 경험에 내재된 보편적인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마약류 수형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범주화하고, 인지적·정서적 재범 특성을 파악하여 마약류 사용의 촉발요인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마약류 수형자 대상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마약류 수형자 연구 참여자의 특성으로 인해 8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과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참여자의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연구 참여자 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마약류 수형자의 개인적이고 심층적인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이 필수적이다.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통된 패턴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수를 지나치게 확장하기보다 깊이 있는 면담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도소 내 마약류 수형자들은 일반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 사용 경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범죄 이력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데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취지와 연구 참여의 익명성 및 비밀 보장이 강조되었으나,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셋째, 연구 참여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약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고 마약류 범죄로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번 이상의 단약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 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모집 가능성을 최소로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은 <표 1>과 같으며 참여자들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모든 정보는 최소화하여 작성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번	나이	학력	성별	수용 전 직업	동종 범수	사용 마약류	투약 기간
1	50대	고졸	남	유흥업	3범	필로폰	20년
2	40대	대퇴	남	인테리어	8범	필로폰	17년
3	30대	대졸	남	사업	3범	필로폰, 케타민	10년
4	30대	대졸	남	유흥업	5범	필로폰, 엑스터시	12년
5	40대	고졸	남	자영업	3범	필로폰	15년
6	50대	고졸	남	무직	11범	필로폰	15년
7	50대	고졸	남	자영업	7범	필로폰	25년
8	60대	고졸	남	무직	8범	필로폰	27년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심층 면담을 통해 진행되었고, 연구자의 객관성과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담은 최소 1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최소 2~3회에 걸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심층적인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1:1 심층 면담을 주요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받은 후,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담 장소는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팀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철저히 준수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면담 방식 및 질문 구성은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도 교수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2명, 박사 1명, 중독심리 전문가, 중독 회복자 1인의 감수를 받아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중 연구 참여자가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연구자가 더 깊이 탐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탐색 질문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면담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경험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 결집 및 범주화 작업이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검토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해석한 내용과 연구 참여자의 실제 경험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 결과

분석 결과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 재발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 최초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 등 4개의 범주와 21개의 주제결집 그리고 36개의 주제 분리로 정리되었고, 나타난 자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범주, 주제 결집, 주제 분리

범주	주제 결집	주제 분리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	• 마약류 판매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짐 • 가족 부양을 위해 단약을 결심함 •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을 계획함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대한 불편함	• 편견을 가진 시선에 거부감을 느낌 • 가족들의 오해와 외면 • 중독자로 바라보는 시선과 낮아지는 자존감
	약물 사용으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	• 마약류로 인한 타인의 사망 경험
	건강 약화에 대한 염려	• 노년기 중독자에 대한 두려움 • 지속적인 마약류 노출로 인한 건강 악화 • 이전과는 다른 정신상태로 위기감을 느낌
	반복되는 수형생활에 대한 두려움	• 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마약류 • 법적 처벌에 대한 회피 욕구

재발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	중독에 대한 몰이해와 자기과신	• 중독을 습관이라고 생각 •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님을 알게 됨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려는 심리	•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마약류 필요 • 죄책감·우울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
	성생활을 위한 약물 사용의 정당화	• 성관계의 쾌감 증폭을 위해 마약류의 필요성 느낌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 마약류를 원하게 됨 • 마약류가 없는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낌 • 다른 즐거움들과 비교하면서 마약류 갈망
	단약이 쉽다는 착각에서 오는 만용	• 단약 경험으로 다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함
최초 재투약 시 사고 및 정서	투약에 대한 강박적 사고	• 투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일어남 • 단약을 결심했으나 투약을 향한 생각을 멈추기 어려움
	투약을 하지 않으려는 이성적 저항	• 과거 마약류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상기함 • 단약으로 인한 긍정적 경험을 상기함
	단약 기간에 대한 아까움	• 반복적인 형사처벌과 교도소 수용
	현실을 왜곡하는 자기 설득	• 안 걸릴 수 있다는 왜곡된 기대
	투약 실행에 대한 구체적 사고	• 연락·구매·투약 등 계획의 빠른 전개
	약을 사용한 직후의 즉시적 후회	• 투약 직후의 즉각적 죄책감
재투약 이후 사고 및 정서	반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적 체념	• 실패를 인정하고 반복 중독으로의 귀환
	모든 노력이 무너졌다는 좌절감	• 재범자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단약을 포기 • 재범자로서의 수용
	재발사실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내적 갈등	• 평생 중독자로 살 것인지를 고민
	재투약 이후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	• 안 걸리면 된다는 합리화 • 범죄자가 된 나의 책임
	자신이 다시 단약 의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	• 단약을 해도 낙인·불신 지속에 대한 갈망

1. 단약 결심과 유지에 관한 사고 및 정서

약물 사용을 끊기로 결심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동기와 생각이 공존하는데 이러한 심리의 사고 및 정서로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대한 불편함, 약물 사용으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 건강 악화에 대한 염려, 반복되는 수형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 5개의 주제 결집으로 분석되었다.

(1) 평범하고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

연구 참여자들은 마약류로부터 벗어난 평범한 삶을 소망하였다. 평범한 삶을 소망하는 동기는 가족과의 약속, 가족의 부양 또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기 위함 등이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위해 단약을 결심하고 유지하였다.

“저는 원래 판매를 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로 좀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건설 쪽을 한번 해봤어요..... 스스로 싸운 거죠. 아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못 지킬 바에는 밖에서 뭘 지키겠나 싶어서.”(참여자3)

“교도소 징역 다 살고 나갔을 때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뭐 밖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다 가족 때문에..... 마음 먹고 무조건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출소를 했었죠.”(참여자4)

“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여자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단약을 하게 된 거죠. 사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있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노력을 했었죠.”(참여자6)

(2)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대한 불편함

왜곡된 시선에 대한 불편함은 단약을 결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약류 투약 사실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왜곡되거나 평가절하하는 시선을 받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거나 위축감, 거부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다. 이는 참여자들이 단약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색안경을 많이 끼고 보거든요. 제가 원래 약 안 했을 때도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어 너 약을 하더니 좀 이상해졌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좀 거부감이 들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은

아유 나가서 몸에 안 좋은 마약류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뛰다, 안 뛰고 가만히 있으면 아유 정말 약쟁이들 막 게을러 터졌다.”(참여자1)

“저는 제가 잘못해서 여기 왔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힘든 마음을 좀 알아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약이 좋아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약을 선택했다, 이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참여자4)

“그냥 와 이게 뭐라고 이까짓게 뭐라고 내 인생을 발목 잡나. 주위에 날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던 뭐 관계들이 다 무너지니까 없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뭐 자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게 낮아지더라고요.”(참여자8)

(3) 약물 사용으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공포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단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약류를 함께 투약하던 주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마약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느꼈으며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단약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주변인들의 죽음..... 약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좀 쫓기고 마음이 이상해지고, 우울증도 많이 오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살을 많이 하고 신체적으로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마약류 때문에 나도 죽겠구나..... 나에게 원래 주어진 삶보다 훨씬 짧게 살 수 있겠구나.”(참여자1)

“죽음에 가깝다는 인식이 항상 있죠.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참여자1)

“제 주위에서도 약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도 출소한지 11개월 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세 달 만에 죽은 애도 있고.”(참여자3)

(4) 건강 악화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유사하게, 마약류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는 것은 단약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노년기를 맞이한 마약류 중독자의

모습은 건강 상태와 생활 수준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 참여자가 마약류 중독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했다.

“좀 안 좋게 늙으신 그런 분들을 보면서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빨 다 빠지고 가난하고 주위에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들죠.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참여자6)

또한 지속적으로 마약류에 노출되면서 건강 악화를 경험하거나, 이전과는 다른 정신적 현상을 겪게 되면서 마약류에 탐닉해 있는 자신의 현재에 위기감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몸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진짜 안 해야겠다는 생각.”(참여자8)

“세 번째인데요, 이번 징역은 오면서 제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랑 달라요. 이번에는 좀 아니더라고요. 인지 능력이나, 망상도 생기고..... 진짜 끊고 싶습니다.”(참여자4)

(5) 반복되는 수형생활 반복에 대한 두려움

수형생활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은 단약을 결심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전에도 마약류로 인한 수형생활을 경험했으며, 출소 이후 단약을 하는 기간이 있었다가 재발하였다. 수형생활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하였으며, 이는 단약을 해야 하는 강력하고도 타율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다.

“교도소에 들어오면 정말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고마운 줄 알게 되요. 약은 하면 구속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내가 약하고 안 걸리면 되리라고는 생각해도 감옥 가도 투약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참여자1)

“안 하면 저도 교도소에 들어올 일이 없고 이렇게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징역을 사니까.”(참여자2)

“처음에 한 뒤 5~6개월 간은 단약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안에서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끊어야 된다.”(참여자4)

“솔직히 징역 오는 게 무서우니까. 약을 하면 또 잡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보다 명청해서 맨날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죠. 같이 계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참여자5)

2. 재발의 원인에 대한 사고 및 정서

재발이 일어나기 전, 즉 다시 약물을 사용하게 되기 직전의 심리 상태의 사고 및 정서로는 중독에 대한 몰이해와 자기 과신,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려는 심리, 성생활을 위한 약물 사용의 정당화,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단약이 쉽다는 착각에서 오는 만용 등 5개의 주제 결집으로 분석되었다.

(1) 중독에 대한 몰이해와 자기 과신

연구 참여자들은 약을 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으나, 정작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 것이 마약류의 중독성임을 알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약과 중독성을 관련짓지 못했고, 관련성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중독 현상에 대해 몰이해한 상황에서 단약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 재발이라는 실패를 경험해야 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중독이라 생각 안 하고 습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약을 맞아 버릇해서 중독이라는 생각 안 했어요.”(참여자3)

“첫 번째 때는 중독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같은 재소자들끼리는 못 끊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었을 때였어요. 2년차 정도였을 때니까, 맘 먹으면 충분히 끊을 수 있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참여자4)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이거는 그만하면 안 할 수 있고 다음에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좀 부인하고 싶었죠. 나는 그냥 끊을 수 있다고 그리 생각했는데.”(참여자5)

(2)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려는 심리

단약을 유지하던 연구 참여자들은 재발이 일어나기 전에 죄책감, 부담감, 무력감, 우울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겪었으며 이는 일회성이 아닌 다소 지속적인 형태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편적인 문제로 인한 정서적 작용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개인 성장의 역경과 같이,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다스리면서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어려워했고 회피하고자 하였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제 수명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속상해서, 미안함, 죄책감, 그분들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쨌든 또 그분들 생각하면 또 하게 되고. 미안한 마음에서 안 해야지 하면서도, 그 마음이 무거워서, 그 마음으로 벗어나고 싶으니까.”(참여자3)

“1년 6개월 넘게 단약을 잘 해오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우울증도 오고, 그런 힘든 것 때문에 두 번째로 다시 손을 대게 되고.”(참여자4)

(3) 성생활을 위한 약물 사용의 정당화

연구 참여자들은 단약에 대한 의지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성생활과 마주할 때 마약류의 필요성에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약 이전의 성생활에서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마약류를 투약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마약류가 주는 감각적 쾌락의 증폭이 성생활의 기준이 되어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였다. 이는 단약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약을 안 하고서는 못하게 되는 거죠. 약을 하고 관계를 해야만 그 쾌감을 느끼는 거지. 관계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참여자2)

“이걸 하면은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좀 더 몇십 배 더 쾌락이 있어요. 그거를 아니까..... 저도 이제 아내랑 헤어지고 외로운 찰나였는데, 그 여성분이 약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단약하고 이제 저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앞에 있으면 안 할 것 같았는데.”(참여자6)

(4)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무료함은 재발이 일어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정서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의지적으로 단약을 시작하였으며, 단약하는 삶 자체가 도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름의 성취감이 있었으나, 단약 유지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느끼는 지루함과 무료함은 더 커지게 되었다. 단약을 유지하는 노력에 의미를 잃게 되면서 마약류가 주었던 쾌락감과 보상 기억으로 인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

“진짜 바쁘게 살면은 생각 안 나더라고요. 단약하고 완전히 잊고 살았거든요. 회사도 다니고 뭐 일도 잘 됐거든요. 애하고 집사람 관계도 좋았고, 그게 너무 편안하니까 이게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잡생각..... 이 편안함과는 뭔가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더라고요.”(참여자4)

“정신 차리고 한 3년 안 해봤다가..... 재미 이런 걸 떠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 재미 너무 없는데 돈 벌면 뭐하냐? 마약류를 안 하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니까 내가 마약류 안 하잖아. 그냥 이거 써도 되는 돈이잖아. 마약류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출이 더 많아지고 근데 진짜 재미는 없고.”(참여자8)

이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해 유혹 등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연구 참여자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투입된 노력만큼 돌아오지 않는 보상들은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기타 시도들과 마약류를 비교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마약류에 대한 갈망을 강화시키게 되고 재발과 연결되었다.

“100만 원을 다 썼는데 막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고기 좀 먹고 술 좀 마시고 나머진 한 8~90만 원이 다 유혹비로 다 나가버렸으니, 와 이걸로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80~90만 원으로 약을 샀으면, 내가 요거밖에 재미가 없었는데, 그 가성비가 안 받쳐주니까, 막 이런 진짜 처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전화가 오니까 형님(판매자)한테 백만 원 갖다주면 진짜 반 통 받아서 한 일주일 재밌게 놀 수 있는데.”(참여자8)

(5) 단약이 쉽다는 착각에서 오는 만용

연구 참여자들은 약에 대한 유혹을 느꼈을 때, 단약을 유지하는 것을 과정이 아닌 결과로 왜곡 해석하고 자신에게 분별없이 적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약의 개념을 ‘유지되는 상태’가 아닌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약을 하지 않았음’의 성과로 변용하였으며, 자신이 다시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므로 그 성과에 도전할 수 있다는 왜곡된 논리를 세우고 무작정 용기를 내는 만용을 보였다.

“합리화인거죠. ‘난 단약을 해서 최악을 극복했어.’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또 이렇게 연결되요. 그러니까 난 해도 돼. 또 극복할 수 있어.”(참여자1)

“단약을 했으니까, 1~2번 하는 거면 다시 이거 이것만 하고 내가 뒤에 또 끊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잘 참아왔으니까 뭐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약간 보상심리 그런 것도 있고, 안 된다 하면서도 그러면서 뭐 어때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고 또 끊으면 돼. 나는 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시작했었고.”(참여자6)

▶ 다음 호에 이어서

장관님, 영화 <만남의 집> 시사회 참석



일시·장소 10. 25.(토) 15:00,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
참 석 자 장관, 교정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사회복귀과장 등
주요 내용 영화 상영(2시간) 및 출연자들과의 토크 진행(10분) 등

제80주년 교정의 날 표창 전수식



일시·장소 10. 29.(수) 09:30, 본부장실
수 상 자 교정기획과 교정관 박지영 등 8명
참 석 자 교정 보안정책단장, 각 부서 과장

장관님과 함께하는 교화라디오 「희망토크」 송출



해당 방송 교화라디오 정오방송 <함께 나누는 희망이야기>
방송 시간 10. 28.(화) 12:00~12:15 (15분)
 ※ 교정의 날, 장관님 취임 100일 전일
주요 내용

- 교정의 날 축하, 취임 100일을 앞둔 소회
- 수능 준비 수용자들에 대한 응원 등 격려 메시지
- 수용자 Q&A '궁금해요, 장관님!'

전국 교정기관 언론·홍보 담당 부서장 영상회의



일시·장소 10. 31.(금) 13:30, 본부회의실
참 석 자 (교정본부) (주제) 교정정책단장, 각 과 주무 교정관 등 (소속기관) 각 지방교정청 및 전국 교정기관 홍보담당 부서장
주요 내용

- 새 정부와 우리부 언론 홍보 강화 기조 공유
- 언론·홍보 강화 지시 내용 재강조
- 일선 교정기관 언론 홍보 관련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창훈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이천시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보라미 장터 운영을 비롯해 여주교도소 등 관내 5개 교정기관 수용자들이 재배한 국화 500여 점이 출품돼 가을의 정취를 더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월 초 관내 장애인·노인·결손아동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녹향원·마리아의 집·명륜보육원에 각 5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지난 설 명절에 이어 지속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번 성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 개최

안양교도소는 지난 10월 24일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여 '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교정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수원구치소 | 교위 이승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사랑 전해

수원구치소는 지난 10월 2일 '동광원'에 방문, 생필품 및 기부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집'과 '생명의 집' 등 관내 복지시설 6곳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 나눔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교정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10월 28일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직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족구, 다트, 자유투, 제기차기, OX퀴즈 등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됐다.

인천구치소 | 교사 장경준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참관

인천구치소는 지난 10월 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 23명을 대상,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과 보호사업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수용자의 생활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교정·교화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송실대 사복과 참관행사 진행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10월 20일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참관을 통해 학생들은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며 교정 현장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유정수 신부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0월 17일 전주교정위원 유정수 신부

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전수했다. 유정수 신부는 2022년부터 수원교구 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10월 24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직 교정위원들이 참석해 신규 위촉자를 축하하고 격려했으며, 위촉식 이후에는 수용동·작업장 등 시설 참관과 교정위원 교육이 진행됐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WKBL과 함께 장애인체육교실 실시

여주교도소는 지난 10월 2일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과 함께 장애인수형자를 위한 심신단련 체육교실의 첫 수업을 진행했다. WKBL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수형자의 신체적 한계를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이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최승선

법무부 국민기저단 및 CJ오픈 작가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10월 2일 법무부 국민기저단 및 CJ오픈 작가단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단은 컴퓨터응용선반, 인쇄, 만델라소년학교 등 직업훈련 과정과 수용동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행정과 시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직원 승진 임용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지난 10월 2일 직원 3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식을 통해 박기주 소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고진솔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개최

원주교도소는 지난 10월 23일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원주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정공무원·교정위원·원주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강릉교도소는 지난 10월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강릉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5곳을 방문,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성은모자원, 상선연마을 노인회, 흥제동 독거노인 37가구 등 지역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 펼쳐

영월교도소는 지난 10월 20일 영월 농협과 영월교도소 직원, 대체복무단, 보라미봉사단과 함께 영월읍 흥월리 일대 고추밭에서 지역농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농협과 협력을 통해 농촌 봉사활동 체계화 및 활성화하고자 진행됐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이수영

속초 해양경찰서 직원 등 참관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10월 24일 속초해양경찰서 직원 및 실습생 등 24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업무 소개, 중앙통제실·접견실·자치수용동·직업훈련장 등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 교정시설의 운영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손운근

교정의 날 기념 짜장면 나눔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10월 27일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신규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정시설 참관과 함께 진행, 교정행정의 역할과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소망교도소 총무과 | 교도 박성호

추석 맞아 민속놀이 행사 개최

소망교도소는 지난 10월 1일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석맞이 민속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수용자들은 이날 함께 어울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나눴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대면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10월 15일 소속 기관 인사관리 및 특사 경 업무 담당자 2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내용으로 한 이번 교육은 부패취약분야 종사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올바른 직무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창원교도소는 지난 10월 22일 마산소방소 석전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수용자 대피, 응급환자 이송, 수용자 도주 등 종합적 수용사고에 대비한 실전형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부산교도소는 지난 10월 16일 신규 교정위원 8명에 대한 위촉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광영호 회장 등이 참석, 교정위원에게 위촉장, 교정위원증, 꽃다발 등을 전달했다. 주정만 소장은 이날 “수용자에게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해오름갤러리서 작가 초대전 개최

포항교도소는 지난 10월 1일 민원실 내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갤러리에 김태현 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규성 소장은 이와 관련,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열린 공간으로 다가가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직원 봉사단 나눔 실천

진주교도소는 지난 10월 초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나누미봉사단이 함께한 이번 나눔에는 총 270만 원의 성금이 모금됐으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은 8가구를 비롯해 창원 소망원, 진주북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대구구치소는 지난 10월 16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7명의 신규 교정위원들은 위촉식을 가진 뒤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과 유의사항을 안 내받고 교정시설을 참관하며 교정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아·미용 재능기부 및 사과재배 봉사 진행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0월 1일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 15명은 소망의집을 방문해 아·미용 봉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산리 일대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 등 농촌 일에 손을 보태기도 했다. 김태훈 소장은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풍산초등학교 장학 기금 전달

안동교도소는 지난 10월 1일 풍산초등학교에 장학 기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기금은 학교장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모범적인 학생으로 추천한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수여됐다. 운영주 소장은 이에 대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인욱

진보중고교에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10월 20일 진보중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고, 교도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현

직원 가족 초청 참관 행사 진행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10월 23일 직원 가족 77명을 초청해 교정현장을 둘러보는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교정장비 및 호송버

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이번 행사는 교정공무원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추석 명절 맞이 지역주민 위문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10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 가정을 방문, 위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보면사무소의 협조로 선정된 57가구에 각 2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박준규

증축수용동 개청 대비 회의 개최

울산구치소는 최근 증축 수용동의 개청을 앞두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직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확충된 수용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 조사·징발·출역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수용동의 운영 방향과 안전관리 절차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강태훈

취업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진행

경주교도소는 지난 10월 14일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교정위원은 취업지원 분야 전문가로, 앞으로 출소 예정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취업 연계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국립오페라단 갈라 콘서트 개최

통영구치소는 지난 10월 16일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 및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오페라단 초청, 문화나눔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했다. 국립오페라단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거문도 뱀노래’, 오페라 <리굴레토> 중 ‘여자의 마음은’ 등 다양한 곡들로 수용자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희망센터 수용자 봉사활동 실시

밀양구치소는 지난 10월 19일 밀양 희망센터(한국 기본 소재) 중간 처우수용자 7명과 함께 밀양 어린이 교통공원을 방문, 환경미화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밀양 희망센터는 국내 최초 중간처우 시설로, 모범 수용자들이 기술을 익히고 사회적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지진 대피 및 자체 소방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 10월 15일 '지진 대피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사고를 계기로, 교정시설의 안전 확보와 수용자 인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직원들은 이날 재난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소방장비 사용법을 익히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

공업서기보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거창구치소는 지난 10월 20일 공업서기보 모경식 직원의 신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도곤 소장은 이날 "거창구치소에 새롭게 합류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고 예방과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제복근무자 페스타'서 교정 홍보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복근무자 Thank You 페스타'에 참가, 교정에 대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해 대전지방보훈청이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대전지방교정청은 대전시 소재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참관 실시

대전교도소는 지난 10월 15일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등 25명을 대상으로 소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관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을 소개하고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지난 10월 2일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실시했다. 분평동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 성사된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조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우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10가정을 선정해 위문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직원 대상 사격훈련 실시

천안교도소는 지난 10월 16일 직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사격 전 안전 교육은 물론, 기본자세 점검부터 실탄 사격까지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직원들에게 사격요령을 배양하고 자체 방호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교정의 날 기념 콘테스트 진행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3일간 사진·동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했다. 제80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열린 이번 콘테스트는 '교정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화합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됐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자장면 나눔으로 수용자 위로

공주교도소는 지난 10월 23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교정·교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주구치소 | 교사 이재민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충주구치소는 지난 10월 22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7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위촉장 전수식을 가진 후 수용동 등 시설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 신규 교정위원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보령 정심학교 교직원·학생 참관

홍성교도소는 지난 10월 14일 보령 정심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정홍보 영상 시청, 수감·포송 등 교정장비 체험, 교정시설 참관 및 교정행정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정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구자호

수용자 상담 공개 사례회의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10월 21일 대전지방교정청이 주관하는 '2025년 하반기 수용자 상담 공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대전지방교정청 소속 각 기관의 심리상담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수용자 상담에 효과적인 기법을 공유하는 등 심리상담 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장(場)이 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진정민

법무보호위원 대상 교정시설 참관 진행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10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보호위원 총 22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참관인들은 이날 서산지소의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수용동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시설 운영 현황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전용배

보라미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활동 나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10월 21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논산시 우곡리에 소재한 방울토마토 농장에서 진행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52급 수형자 5명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참여, 근로의 즐거움과 보람을 경험하며 사회복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전은주

법무부장관기 배드민턴대회 성료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10월 25일 법무부장관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김동문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23개 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가, 교정가족들의 건강증진과 기관 간 화합을 다졌다. 이번 대회는 광주지방교정청이 주최하고 광주교도소가 주관했으며, 익산시배드민턴협회가 후원했다.



광주교도소 | 교위 나사웅

‘2025 사랑나눔 후원’ 장학금 기탁

광주교도소는 지난 9월 30일 광주 북구 삼각동 일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총 120만 원의 ‘2025 사랑나눔 후원’ 장학금을 기탁했다. 광주교도소 전 직원들이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했으며, 이번 장학금은 추천을 통해 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6명에게 각 2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 교위 최찬원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전주교도소는 지난 10월 22일 김우섭 (여태건종합건설이사 등) 신규 교정위원 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와 교정위원증 전달, 신규 위원에 대한 축하와 시설 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규 교정위원들은 앞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순천교도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제54회 교정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용자 작품 162점과 교정공무원 작품 2점, 교정위원 작품 4점이 출품됐다. 특히 수용자들은 수용 생활 중에도 틈틈이 작품활동에 매진, 새로운 희망과 재도약의 의지를 작품에 담아내 의미를 더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보라미봉사단 활동 전개

목포교도소는 지난 10월 22일 보라미봉사단 활동을 펼쳤다. 인근 양로원을 방문한 봉사단은 이날 시설 내부 청소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활동은 수용자의 사회적 유대 강화와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군산교도소 | 교사 문준호

추석맞이 수용자 합동 차례 실시

군산교도소는 지난 10월 1일 ‘추석맞이 수용자 합동차례’를 실시

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실시된 이번 차례에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는 작업장 봉사와원과 종교집회 봉사와원 14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소장은 이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출정 도주 대비 자체훈련 진행

제주교도소는 지난 10월 20일 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 도주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출정 도주 대비 자체훈련을 실시했다. 출정과장 등 11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수용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장흥교도소 | 교도 한지현

향원중 대상 참관행사 진행

장흥교도소는 지난 10월 21일 장흥향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정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직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관인들은 이날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추석 맞아 자매결연마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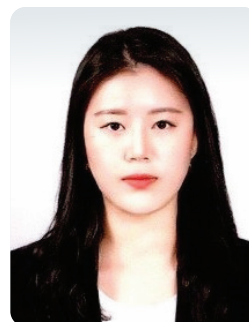
해남교도소는 지난 10월 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매결연마을인 영안마을에 방문,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마을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 윤대하 소장은 이날 “해남교도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정읍교도소는 지난 10월 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문금품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온정을 나눴다. 직원들의 사랑의 손잡기 기금으로 마련된 이번 위문금품은 ‘정읍애육원’, ‘정읍자매원’ 등 사회복지시설 2곳과 소성면 지역 소외계층 1명에게 전달됐다.

모범 공무원



강릉교도소 | 서기보 조성용

조성용 서기보는 2021년 임용 이후 4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 왔다. 특히 최근 강릉시의 물 부족으로 50% 제한급수 조치가 시행되자, 교도소 내 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물 절약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T/F팀 운영에 적극 참여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급수 현황을 매일 점검했으며, 제한급수 시행 중에도 급수 시간마다 시설을 모가며 밸브 개폐를 직접 관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했다.

대구교도소 | 교사 박성은

박성은 교사는 지난 8월 10일 야간 근무 중 새벽 1시 35분경, 호흡곤란과 의식저하로 쓰러진 수용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의료과로 이송된 수용자가 심장지 상태에 이르자, 박 교사는 구급차 탑승 후에도 끝까지 CPR을 지속하는 등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했다. 박 교사의 신속하고 침착한 덕분에 수용자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인공소생에 성공하며 생명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박 교사의 이번 대응은 교정사고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안희진

안희진 교사는 평소 수용자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맞춤형 처우와 지속적인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작업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수용자에게는 야깁 없는 격려와 긍정적 피드백을 전하며, 노력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끈다. 안 교사의 이러한 노력은 작업능률 향상을 물론, 상호 존중과 협력이 살아 있는 교정 문화 조성에 기여하며, 교정행정의 본질인 인간 존중과 회복적 교화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제주교도소 | 교감 고동진

고동진 교감은 보안과 3부 기동순찰 근무자로서 휴일 및 야간근무 시 직원들의 근무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원활한 교정시설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근무자들의 피로도도 현장 상황을 세밀히 고려한 근무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였으며,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교정사고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고 교감의 이러한 노력은 교정시설의 안전성과 근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으며, 책임감 있는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상주교도소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만나는
특별한 쉼터가 있다. 이곳은 하루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는 공간이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마음을 나누는 회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따뜻한 흠빛이 감도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

힌트



이곳은 직원들이 직접 흠을 나르고,
수도를 연결해 만들었다.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2025 인구주택 총조사 10.22.~11.18.

인터넷 및 전화조사 | 10.22.~11.18.
방문 면접조사 | 11.01.~11.18.

김성철씨의 답이
노인 일자리 사업 으로

이서준씨의 답이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으로

김보영씨의 답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으로

김유빈씨의 답이
1인가구 주거 지원 정책 으로

이은영씨의 답이
활동제한자 돌봄 지원 정책 으로

서지원씨의 답이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으로

대한씨의 답이
다문화 지원 정책 으로

당신의 답이 대한민국에 좋은 답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당신의 답을 들려주세요

조사대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0% 표본가구

홈페이지 | census.go.kr

콜 센 터 | 080-2025-2025 (무료) *오전8시~오후9시 (주말포함)

